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9, No. 111, pp.163-215
<https://doi.org/10.29212/mh.2019.111.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강원도 동해안 지역 평지 포곡식 산성의 축조시기와 성격

홍영호*

1. 머리말
2.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평지 포곡식 산성 조사
 - 가. 속초 동명동 속초리토성(束草里土城)
 - 나. 양양 양양읍성(襄陽邑城)
 - 다. 양양 조산 대포영성(大浦營城)
 - 라. 양양 현북 광정진성(廣丁鎭城)
 - 마. 강릉 연곡 방내리성지(坊內里城址)
 - 바. 강릉 사천 석교리토성(石橋里土城)
 - 사. 강릉 성산 금산리 명주성(溟州城)
 - 아. 강릉 구정 학산리 왕현성(王峴城)
 - 자. 강릉 강동 모전리 장안성(長安城)
 - 차. 동해 망상 심곡리성지(深谷里城址)
 - 카. 삼척 근덕 광태리성(光泰里城)
 - 타. 삼척 원덕 호산리성지(湖山里城址)
3. 축조시기와 성격 분석
4. 맺음말

* 문학박사, 태백 세연중 역사 교사

1. 머리말

강원도 영동지방은 백두대간의 동쪽에 있고, 동해를 연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지형적 조건은 영동지방을 중앙으로부터 떨어진 격절성을 가지게 만들었고, 북쪽과 바다로부터 침입하는 외적을 상대해야 하는 공간이 되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영동지방은 고려시대에 東界 지역으로 편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영동지방에는 바다로부터 침입하는 외적을 막고, 지역민들이 입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축조한 산성과 성보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실제 영동지방의 산성과 성보들 가운데에는 바다를 조망하고 감제하는 데에 유리하고, 방어에도 유리한 곳에 위치한 것들이 있다.

그런데 현재 영동지방의 산성과 성보들에 대한 조사연구는 축성시대별, 성격별로 명확히 구분하려는 연구가 부족하였고, 실증적인 연구가 결여된 채 전해오는 기존의 자료들을 토대로 정리하는 경향이 강하다. 예를 들면 동해안에는 예국시대,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에 처음 축조되었다는 산성과 성보들이 있는데, 사실 실증적인 자료로 뒷받침 되지 않는다.

그 결과 이들 산성과 성보에 대한 조사연구가 각 시대사(삼한, 삼국, 통일신라, 고려, 조선)나 주제사(관방사, 국방사)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학문적 오류를 야기하여 역사적 해석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 말하자면 삼국시대의 성이 아닌데, 전승되어 오는 대로 삼국시대의 성으로 분류하여 역사 해석을 하면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산성의 정확한 축조시기와 성격부터 실증적으로 올바르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필자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그동안 영동지방의 산성과 성보들을 시대별, 성격별로 실증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작업을 해 왔다.

이 글의 목적도 특정한 입지와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산성과 성보

의 축조시기와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그동안 혼란했던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분포한 평지 포곡식 산성, 즉 평면 ‘ㄱ’자형(말굽형) 산성의 축조시기와 성격을 밝혀보고자 한다.

2.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평지 포곡식 산성 조사

가. 속초 동명동 속초리토성(束草里土城)

속초리토성은 속초시 동명동¹⁾의 시외버스정류장 맞은편에 위치한다. 토성은 일제 강점기에 철도가 지나가고,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교회·성당과 주거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파괴되어 성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러므로 토성의 평면형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산 능선이 평면말굽형으로 그 내부를 둘러싸며 남쪽은 평지와 연결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속초리토성은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서 처음 보이는데, 도천면 속초리에 있는 성지로 삼백칸이며 흙으로 쌓았다고 기록되어 있다.²⁾ 이후 『한글지명총람』에서 ‘장골(장안골)’에 옛 성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³⁾

속초리토성은 일부 토성벽에 대한 시굴조사 결과 기저부를 정지한 후, 가공정도가 조잡한 세장방형 석재들을 활용하여 1~3단의 석축기단을 쌓고, 기와를 혼입하여 내·외벽을 성토하는 등

1) 조선시대 양양도호부에 속하였던 속초리가 해방 이후 속초시로 발전하면서 유적이 있는 지역이 東明洞으로 되었다. 이 글에서는 역사성을 고려하여 속초리토성으로 명명하여 사용한다.

2) 朝鮮總督府,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襄陽郡, 1942, 543쪽.
城址, 道川面 束草里, 私有, “束草里部落ノ西方ニ近接セル小丘上ニアリ 周圍約三百間土築, 稍完全”

3)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2-강원편-』, 속초시, 1967, 174쪽.
•장골(장안골), 속초리 서북쪽 산 아래에 있는 마을. 옛 성이 있었다 함.

고려시대의 축조 기법을 잘 보여주고 있다.⁴⁾ 특히 ‘天慶三年’명(1113년) 기와가 출토되었으므로 이 성이 고려 전기에 존재했음을 알려준다. 여기에 ‘(立)官舍’명 기와가 수습되었고, ‘長安’이라는 지명도 전해지므로 이 성이 고려 전기에 지역토착세력의 거점이자 중심마을이며, 치소적 성격이자 행정적·군사적 거점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바닷가 평지에 입지하였다는 점에서 동여진 해적과 같은 소규모 적을 방어하거나 입보하는 데에도 활용되었을 것이다 <도판 1, 11> .

그 후 고려 말~조선 초기 왜구의 침입 시기에 水軍浦津을 설치하여 왜구를 방어하고, 沿海 지역을 재건하기 위하여 백성들을 安集하면서 연해민들을 入保시키는 산성(토성)을 운영하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속초리토성은 다시 활용되었을 것이다.⁵⁾ 이것은 조선초기의 사료에서 속초포진, 쌍성포진, 산성포진 등이 등장하는데,⁶⁾ 이들 포진이 속초리토성이므로 입증된다. 즉 사료에 보이는 속초포, 쌍성포, 산성포는 혼용된 명칭이거나 해상 방어체제의 변화 속에서 다르게 부른 것일 뿐, 그 실체는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이것은 束草浦의 束草/束津이라는 지명이 청초호 北岸 속초리토성 일대에 남아 있고, 속초리토성이 청초호 출입구 앞의 만에 위치하여 바다로 출입할 수 있는 포구를 가진 평지 산성이므로 山城浦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즉 속초리토성은 사료에 나오는 束草浦, 雙成浦, 山城浦의 실체를 보여주는 유적이다.⁷⁾

4) 예맥문화재연구원, 『束草 東明洞遺蹟』, 學術調查報告 第61冊, 2014.

5) 홍영호, 「속초시 속초리토성의 역사적 성격과 실체」 『白山學報』 108, 白山學會, 2017, 84쪽.

6) 『세종실록지리지』 강원도 水軍萬戶守禦處의 束草浦, 『세종실록』 권28, 7년 4월 26일 乙丑 기사와 雙城浦, 『세종실록』 권15, 4년 1월 25일 癸未 및 권29, 8년 9월 14일 乙巳 기사와 山城浦 참조.

7) 홍영호, 「속초시 속초리토성의 역사적 성격과 실체」 『白山學報』 108, 白山學會, 2017, 84쪽.

나아가 이 성이 동해안에서 배의 피항과 정박에 유리한 석호 [청초호] 옆에 위치하였으므로 漕運과 海運의 거점 역할도 필요시 수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⁸⁾

나. 양양 양양읍성(襄陽邑城)

양양읍성은 양양군 양양읍 군행리·성내리 일원에 위치한다. 『고려사』에 의하면 목종 10년(1007)에 348칸 규모로 축조되었고,⁹⁾ 몽고군이 침입할 때에도 존재하였으며,¹⁰⁾ 고려 말기에는 許周가 知襄州事가 되어 왜구를 방비하기 위하여 쌓았다.¹¹⁾ 조선 시대에는 태조 2년에 襄州城 안에서 불이 났다는 기록이 보인다.¹²⁾ 양양읍성의 규모는 『세종실록지리지』에서 둘레가 1,088步의 토성으로 나온다.¹³⁾ 이후 문종 때에는 양양읍성을 둘레 2,724尺, 높이 5~10여척으로 쌓도록 상소하는 내용이 나온다.¹⁴⁾ 그런데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양양읍성이 석축 403척, 토축 2,825척으로 구분되며, 지금은 반이 퇴락하였다고 나온다.¹⁵⁾ 이후의 지리지나 읍지들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과 대

8) 고려시대에 東界나 北界지역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바다를 이용하였다는 연구 성과 및 조선시대에 비정기적이거나 필요시 漕運과 海運이 동해안에서 이루어진 사료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홍영호, 「속초시 속초리토성의 역사적 성격과 실체」 『白山學報』 108, 白山學會, 2017, 76~77쪽.

9) 『高麗史』 卷82, 志36 兵2 城堡, “... 又城翼嶺縣三百四十八間門四.” 『高麗史節要』 卷2, 穆宗 丁未 10年條.

10) 『三國遺事』 卷3, 塔像 第4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條. 『高麗史』 卷24, 高宗3 癸丑 40年 10月 丙寅日條.

11) 『世宗實錄』 卷91, 22年 12月 8日 丁丑, “歲乙丑 出知襄州事 時倭寇充斥 民不安業 皆竄匿山谷以避之 周下車 卽築邑城 備禦有制.”

12) 『太祖實錄』 卷3, 2年 2月 20日 乙未, “大風 城中多失火 江陵道襄州一家失火 延燒官舍民家殆盡.”

13) 『世宗實錄地理誌』 卷 第153 江原道 襄陽都護府, “邑土城 周回一千八十八步.”

14) 『文宗實錄』 卷10, 1年 11月 28日 壬戌, “襄陽邑城 周回二千七百二十四尺 役本府及原州軍人一千四百七十五名 ... 高或十餘尺 或七八尺 或五六尺.”

15) 『新增東國輿地勝覽』 襄陽都護府 城郭, “邑城 石築周四百三尺高五尺 土

동소이다.¹⁶⁾ 현재 양주성 또는 양양읍성의 규모는 관공서와 민가, 도로 등으로 파괴되어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러나 현장 조사를 통해 양주성(양양읍성)의 길이는 약 1,513m, 면적은 123,524㎡(약 37,366坪)로 추정할 바 있다.¹⁷⁾ 실제 구릉지대의 양상을 볼 때 읍성의 석축부가 확인되는 현산 공원부터 양양시내를 감싸는 나지막한 능선이 읍성의 잔재로 추정된다.¹⁸⁾ 다만 양양읍성도 北高南低의 地勢이나, 높은 능선이 말굽형으로 내부를 둘러싸는 지형인지는 알기 어렵다.

양양읍성의 축성방법과 축성시기의 규명은 북문지 주변의 발굴 결과가 도움이 된다. 발굴보고서에 의하면 4차례의 사용 시기로 구분된다. 1차 성벽은 암반을 삭토하고 판축한 뒤 석재를 사용하여 기저부를 조성하였다. 2차 성벽은 잔존하는 1차 성벽 상부에 와적층을 놓고 기저부로 삼았다. 3차 성벽은 2차 성벽 외벽에서 성외측 방향으로 1.3m 떨어진 와적층 상부에 조성되었다. 4차 성벽은 3차 성벽의 상부에 조성하였는데, 1~3차 성벽과는 축조방법에서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축조시기는, 1차 성벽은 1007년의 초축성벽으로 판단된다. 2~4차 성벽은 부분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축인지, 부분적인 보수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성벽 지근거리에 조성된 축대, 건물지 등 민가를 통해 15세기 이후 성이 퇴락하였다는 문헌기록과 부합함을 알 수 있다.¹⁹⁾

출토된 기와는 대부분 고려시대 기와이며, 1·2차 성벽과 관련

築周二千八百二十五尺 內有二井 今半頽落。”

16) 예를 들어 『東國輿地誌』·『輿地圖書』·『關東誌』·『關東邑誌』·『增補文獻備考』는 규모를 동일하게 서술하고, 다만 동·남·서문이 남아 있다는 구절의 첨가 유무만 차이가 있다.

17) 池賢柄, 『襄州城의 性格과 特徵』 『양주성축성 1천주년 기념을 위한 학술토론회』, 양양문화원, 2004, 25쪽.

18) 박경식, 『양양읍성의 정비와 복원의 당위성』 『양주성축성 1천주년 기념을 위한 학술토론회』, 양양문화원, 2004, 54쪽.

19) 한백문화재연구원, 『양양읍성-추정 북문지 주변 발굴조사 보고서-』, 2013, 145쪽.

된 체성부와 외황 와적층에서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1차 성벽 후 매몰된 와편과 2·3차 성벽 사이의 와적층에서 출토된 기와는 속성의 차이가 없어 시기구분이 어렵다. 간지와 연호가 확인된 기와는 ‘癸巳’명(1113년) 기와, ‘丁未’명 기와, ‘大德三年’명(1229년) 기와이다. 성곽의 초축과 관련하여 1차 외황 바닥에서 수습한 목탄시료 연대측정 결과 890·890·970·1020년의 보정연대가 도출되었다. 이상의 문헌 및 고고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1차 성벽은 1007년에 축조된 초축성벽일 가능성이 높다. 2차 성벽은 1차 성벽 이후 대대적으로 보수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1385년 허주의 중수기사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3차 성벽은 일부 구간을 수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차 성벽은 1~3차 성벽과 축조방법 및 평면위치에서 차이가 확인되어 3~4차 성벽 사이에는 시간의 간극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헌기록에는 1451년에 수축기사가 있으나 3,4차 성벽의 축조시기를 비정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 다만 4차 성벽은 축조방법, 위치에서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므로 조선시대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양읍성은 조선 중기인 16세기에 와서 성의 기능을 점차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3차 성벽에 근접해 조성된 1호 축대와 성벽 북쪽 외곽에서 확인되는 건물지, 주거지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²⁰⁾

특히 양양읍성에서 출토된 ‘癸巳’명 기와는 ‘天慶三年癸巳四月日’명 기와로 볼 수 있다.²¹⁾ 이 기와는 1007년에 축조된 양주

20) 한백문화재연구원, 『양양읍성-추정 북문지 주변 발굴조사 보고서-』, 2013, 125~126쪽.

21) 양양읍성 출토 ‘○年癸巳四月...’명 기와, ‘○三年癸巳...’명 기와는 陳田寺址에서 출토된 ‘天慶三年癸巳四月日’명 기와와 글자의 형태와 문장의 양상이 유사하다. 그리고 이 ‘天慶...’명 기와는 강릉 堀山寺址, 양양 西禪寺址, 속초리토성에서도 출토된 바 있다. 그러므로 양양읍성 출토 ‘○年癸巳四月...’명 기와 역시 ‘天慶三年癸巳四月日’명 기와의 일부로 판단된다(홍영호, 「속초시 속초리토성의 역사적 성격과 실체」 『백산학보』 108, 백산학회, 2017, 66쪽). 양양읍성 출토 ‘○三年癸巳...’명 기와의 ‘○’자는 ‘慶’자의 밑 부분이 남아 있다고 추정되므로 합리적인 판단은

성의 관아 건물의 기와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양양읍성 복문지 발굴조사에서 ‘立官舍’명 기와를 수습하였기 때문이다 <도판 12> . 이 ‘官舍’명 기와는 속초시의 속초리토성에서도 수습된 바 있다.

한편 1차 성벽 이후 와적층을 기저부에 넣고 그 위에 2차 성벽을 쌓은 방식을 1385년 허주의 중수시기와 관련된다는 발굴보고서의 견해를 받아들이면, 다음 절에서 언급될 양양 조산리 대포영성에서도 동쪽 성벽 내부 기저부 부분에 기와들이 열을 이루며 끼워져 있어 비교가 가능하다. 즉 대포영성의 축조시기도 고려말~조선초임을 시사하는데, 이것은 조인벽이 대포영성에 있었다는 설화와 일치하여 의미가 있다. 양양읍성의 발굴에서 나타난 성벽의 면석을 보면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品字形태의 바른층쌓기를 한 외벽의 면석이 아니다. 양양읍성은 외벽에 석축이 명확히 보이는 구간도 있어 석축과 토축으로 분류는 가능하나, 그 위에 토루도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토성이 중심이라 할 수 있다.

다. 양양 조산 대포영성(大浦營城)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대포영은 양양 동쪽 12리에 위치하며, 강릉 안인포에서 조선 성종 21년(1490)에 양양으로 옮겨왔고, 중종 15년(1520)에 석축으로 쌓았는데, 성곽 둘레가 1,469척, 높이 12척이라 하였다.²²⁾ 안인포에서 대포로 만호영을 옮겨 온 것은 안인포가 돌로 막혀 있어 배의 출입이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²³⁾

로 생각된다.

22)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4 襄陽都護府 關防 “大浦營，在府東十二里 成宗二十一年 自江陵安仁浦 移泊于此 水軍萬戶一人 正德庚辰築石 周一千四百六十九尺 高十二尺.” 비슷한 내용이 『輿地圖書』 上 江原道 襄陽 鎮堡 大浦營條에 실려 있다.

23) 『成宗實錄』 卷261, 成宗 23年 正月 己卯.

그 후 『조선지리지』에는 대포성이 위산면 조산리에 있다고 그 위치가 기록되었고,²⁴⁾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에는 대포영성이 土築이며, 일부 구간은 石築으로 나온다.²⁵⁾ 그런데 『문화유적총람』에서는 城內에서 初期鐵器時代의 土器片이 발견되므로 土城이 이때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처음 시사하였다.²⁶⁾

그런데 조선시대 양양도호부에 속하였던 지금의 속초시 대포(향)도 성종대 강릉 안인포에서 옮겨온 대포영이 있었고, 중종대 석축을 쌓았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어 혼란스럽다.²⁷⁾ 일단은 성종대에 설치된 대포영이 양양 조산리이며, 속초 대포와 마산재 대포성은 『세종실록지리지』에 보이는 束草浦²⁸⁾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 보겠다.

양양 대포영지 역시 배후로부터 내려오는 산 능선의 말단부와 가지능선이 평면 ‘∩’자형이며, 그 능선을 성벽으로 이용하여 북고남저의 토성을 축조하였다. 평면형태는 역삼각형으로 남쪽 꼭

24) 『朝鮮地誌資料』(1911~1912년경 편찬) 江原道4 襄陽郡, (城堡名) 大浦城 (諺文) 디포성 (備考) 位山面 造山里.

25) 朝鮮總督府,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 1942, 542쪽, 襄陽郡 15, 城址, 襄陽面 造山里, 私有, “造山里部落ニ 近接セル西方峰筋ニ在リ周圍約三百間土築一部石築, 不完全.”

26) 文化財管理局, 『文化遺蹟總覽』上, 1977, 438쪽, 大浦營址, 襄陽面 造山里.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4 襄陽關防條에 “在府東十二里 成宗21年 自江陵安仁浦移泊于此 水軍萬戶一人(新增) 正德庚辰築石 城周 1469尺, 高12尺”이라는 記錄이 있어 1490년 安仁津에서 옮겨왔으며 1520년에 石築으로 修築한 것을 알 수 있다. 지금은 모두 허물어졌는데, 城內에서 初期鐵器時代의 土器片이 발견되고 있고 土城은 이때부터 있었던 것인지도 알 수 없다.”

27) 文化財管理局, 『文化遺蹟總覽』上, 1977, 365쪽, 大浦城址, 束草市, “마산재 위에 있는 石城으로 조선 成宗 21년(1490)에 江陵 安仁浦에서 옮긴 大浦營이 있어 水軍萬戶가 주둔했으며, 中宗 15년(1520)에 높이 3.6m, 둘레 440m의 城을 쌓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城의 터만 남아 있다.”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2-강원편-』, 1967, 171~172쪽에서도 속초 청초호에 수군만호영이 있었고, 안인포에서 옮겨왔다는 대포영 기록이 있다.

28) 『세종실록지리지』(강원도)에 실린 水軍營鎭(水軍萬戶 守禦處)은 越松浦(平海), 束草浦(襄陽), 江浦口(高城), 三陟浦(三陟), 守山浦(蔚珍), 連谷浦(連谷縣)이다.

지점 부분이 출입부로 열려 있다. 내부는 평지와 높이 차이가 크지 않다. 성 내부에 趙仁璧을 배향하는 東溟書院과 민가 2채가 있으며, 경작지로도 이용되고 있다. 남쪽에는 작은 개천이 흘러가며, 성의 주위는 농경지가 펼쳐진다.

성의 남서편에는 추정 문지로, 동쪽 성벽 자른면에 큰 화강암 석재가 3~4단으로 남아 있다. 성벽 외곽 전체 길이는 약 550m이고, 폭은 약 4m이다. 북쪽 능선 성벽에는 오목하게 북문지가 있으며 안쪽에서 보아 좌측면에는 문지의 기초석이 잘 남아 있다.²⁹⁾

필자는 이 성도 자연능선을 삭토/성토하여 축조한 평면 말굽형 토성이며, 문지나 일부 구간의 기저부·기단부 내·외면 정도만 ‘석축’ 또는 ‘석축+기와’를 혼입하였다고 판단한다.³⁰⁾ 그러므로 석축성으로 보기 곤란하다. 중종 15년(1520)에 양양 대포성을 석축으로 쌓았다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사도 기저부·기단부의 내·외면 석축이나 문지의 석축 정도를 쌓았음을 말해준다.

필자는 성 내에서 신라토기편도 채집하였다. 하지만 이들 신라토기편을 근거로 토성의 축조시기를 신라시대까지 올리기는 곤란하다.³¹⁾ 왜냐하면, 이 신라토기가 신라시대의 건물지나 생활면, 고분 등과 관련될 수 있고, 이 성의 기저부·기단부 외면에 축조한 ‘석축+기와’ 혼입 구간의 기와도 신라~통일신라시대의

29) 지현병·전유길, 「襄陽郡의 關防遺蹟」 『襄陽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江陵大 博物館 學術叢書 5冊, 1994, 209~212쪽.

30) 대포영성이 위치한 造山(里)라는 지명도 판봉(外峰)에서 유래하는데, 판봉은 대포영 성지 동쪽 끝 봉우리를 말한다(襄陽文化院, 『襄陽의 땅 이름』, 1995, 56쪽). 아마 자연능선을 활용하여 (토)성을 만들다가, 필요한 구간에는 인위적으로 쌓았음을 말해준다.

31) 유재춘은 양양 大浦營城에서 초기철기시대의 토기편이 발견되고, 일부 토축의 흔적이 있는 점(文化財管理局, 『文化遺蹟總覽』 上, 1977, 438쪽)을 근거로 이미 城이 있던 곳에 다시 대포영성을 수축한 것으로 생각되며, 대포의 만호영은 정확하지는 않으나 적어도 18세기 중반 이전에 폐지되었다고 한다(유재춘, 「동해안의 수군 유적 연구-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이사부와 동해』 창간호, 한국이사부학회, 2010, 43~44쪽 및 『輿地圖書』 江原道 襄陽都護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지명총람』 양양군 조산리(성안-말)의 지명유래를 보면, 고려말 萬戶 趙仁璧(?~1393)이 이곳에 살면서 마을 둘레에 성을 쌓았다는 전설이 있는데,³²⁾ 실제 조인벽이 江陵道에서 倭寇를 물리친 사료가 있다.³³⁾ 대포성의 축조시기와 성격을 밝히는 데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라. 양양 현북 광정진성(廣丁鎭城)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는 양양군 현북면 상광정리에 土築으로 쌓은 성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³⁴⁾ 양양지역의 읍지 및 지리지에는 “廣汀鎭이 襄陽邑 南四十里 縣北面 上光丁리에 舊墟가 있다. 城址의 南北의 길이가 六十間 東西가 約三百間 山에는 石城을 쌓은 城址가 宛然히 남아 있으며 일찍이 女眞과 倭寇의 侵入을 防禦하던 鎭터이다.”라는 기록도 있다.³⁵⁾

배후의 산에서 동쪽으로 뻗어 내려오는 가지능선의 말단부 형태가 평면 ‘말굽형(∩자형)’으로, 이러한 자연능선을 활용하여 토성을 만들었고 남쪽은 열려 있다. 토성은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으며, 북쪽 성벽의 바깥은 급경사이고, 상단부에 많은 기와와 약간의 돌

32)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2-강원편-』, 1967, 229쪽, 양양 조산리: 성안-말 【마을】 고려 말에 만호(萬戶) 조인벽(趙仁璧)이 이곳에 살면서 마을 둘레에 성을 쌓았음.

양양읍성 내에 있던 마을도 성내리(城內里) [성안마을, 성안말] 라고 부르므로 마을을 싸는 의미도 있다(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2-강원편-』, 1967, 227쪽, 양양군 양양면 성내리).

33) 『高麗史節要』 卷23, 禡王 八年 四月(1382), “江陵道上元帥趙仁璧 副元帥權玄龍 與倭戰 斬三十級.”

34) 朝鮮總督府,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 1942, 541쪽, 襄陽郡 5, 城址, 縣北面 上光丁里, 私有, “上光丁里ノ西北約百五十間ノ小丘上ニアリ延長約二百間土築, 不完全.”

35) 이 기사는 광무5년(1901)경의 「襄陽邑誌」의 내용으로 다음 책에 수록되어 있다(양양문화원, 『鄉土誌』, 1976, 199쪽). 이후에 편찬되는 향토지들은 이 기록을 전제했다.

을 혼입하여 토루를 쌓았다.³⁶⁾ 성벽 전체 길이는 280m 정도이며,³⁷⁾ 성의 북쪽과 남쪽에는 작은 실개천이 흐른다. 성의 내부는 과수원과 밭으로 경작되며, 성의 주위로는 농경지가 펼쳐진다.

광정진성이 사용된 시기는 여진과 왜구의 침입을 방어하던 곳이라는 전승 기록을 근거로 고려시대에 축조되어 조선 초기까지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하며, 기사문리 일대의 포구와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있다.³⁸⁾

마. 강릉 연곡 방내리성지(坊內里城址)

방내리성지는 坊內里土城, 橋虛城이라고도 불리운다. 관련 기록은 『문화유적총람』에 방내리 교허성지로 나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선 世祖 때 鎭管府를 두고 2府 4郡 2縣과 기타 屬縣을 설치할 때 현재의 連谷面이 連谷縣으로 되었던 것으로 미루어 縣監이 있었던 城으로 추정되며 말굽모양의 山勢를 이용하여 쌓은 길이 1km 정도의 包谷式 土城이다. ... 하략 ...³⁹⁾

이 성은 연곡면사무소의 북서쪽에 인접하여 위치하며, ‘성안

36) 광정진성의 토축은 일부 구간이며, 대체로 內托式的 石築으로 되어 있고, 다른 성들처럼 토성으로 축조되었다가 석축으로 개축한 것으로 보는 견해(유재춘, 「동해안의 수군 유적 연구-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이사부와 동해』 창간호, 한국이사부학회, 2010, 41쪽), 성곽의 상면을 토석혼축으로 쌓았다는 견해도 있다(지현병·전유길, 「襄陽郡의 關防遺蹟」 『襄陽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江陵大 博物館 學術叢書5冊, 1994, 212쪽, 廣丁鎭). 필자는 높고 정연한 석축 구간이 없고, 산의 자연 능선을 성벽으로 활용하였으며, 성벽의 외형도 흙이 중심이므로 토성으로 분류한다.

37) 지현병·전유길, 「襄陽郡의 關防遺蹟」 『襄陽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江陵大 博物館 學術叢書 5冊, 1994, 212쪽.

38) 유재춘, 「동해안의 수군 유적 연구-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이사부와 동해』 창간호, 한국이사부학회, 2010, 41쪽.

39) 文化財管理局, 『文化遺蹟總覽』上, 1977, 453쪽, 명주 연곡면 방내리 교허성지.

길’이라고 쓰여진 도로 표지판 방향의 내부를 둘러싸고 있는 산능선을 활용한 토성이다. 북쪽 능선 성벽의 중앙 부분에 문지가 있고, 동쪽 능선 성벽에도 문지가 있다. 山勢를 따라 ‘北高南底’의 단면을 보이며, 남쪽은 열려 있어 출입부의 기능을 한다. 성의 남쪽 앞에는 연곡천이 흐르고, 그 주위로 넓은 충적대지가 펼쳐진다. 토성의 내부는 평지와 낮은 구릉이며, 문흥사라는 절과 민가들이 있다.

성내에서 신라토기가 채집되었고, 連谷面 일대가 三國時代에 支山縣으로 高句麗 領縣이었다가, 그 후 新羅의 領縣이 되었으므로 縣治와 관련된 城으로 간주하기도 한다.⁴⁰⁾ 성의 부근에 삼국시대의 連谷古墳(강원도 문화재자료 제53호)과 고려시대의 坊內里 三層石塔(강원도 유형문화재 제36호)이 있으므로 처음에는 (古)縣城으로 축조되었고, 조선시대 前期에도 縣城으로 기능한 후, 중기 이후 縣의 폐지와 함께 퇴락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⁴¹⁾ 그 때문에 방내리토성 일대를 縣의 治所, 즉 ‘古縣城’으로 보기도 한다.⁴²⁾ 실제 연곡현은 조선시대에 강릉대도호부의 속현이었으므로 방내리성지가 治所였을 가능성이 있다.

성안에서는 기와편과 신라토기편들이 발견되지만, 산성의 내외부에는 신라 고분들이 분포하며, 도굴 때문에 고분유구가 노출된

40) 『三國史記』 卷 第35(雜志 第4) 地理2 溟州條; 李俊善, 「江陵地域の 古代山城」 『地理學』 25, 大韓地理學會, 1982, 18쪽.

유재춘도 방내리토성이 불분명하지만, 삼국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한다(유재춘, 「동해안의 수군 유적 연구-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이사부와 동해』 창간호, 한국이사부학회, 2010, 36쪽).

41) 『關東邑誌』에 縣治의 官舍, 倉庫를 보수한 기록이 1600년대부터 1800년경까지 지속적으로 보이고, 連谷大廳, 連谷館修葺과 같은 官의 통제가 확인되는 기록과 관련시키고 있다(金興術, 「江陵地域 城郭研究」 『臨瀛文化』 23, 江陵文化院, 1999, 56~58쪽).

42) 성의 명칭은 인근에 교동마을이 있고, ‘連谷縣館重修記’에도 校虛城이라 하였으므로 校虛城, 또는 古縣의 의미를 가진 坊內城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金興術, 「江陵地域 城郭研究」 『臨瀛文化』 23, 江陵文化院, 1999, 56쪽).

것도 많고 그 주위로 신라토기편들이 흩어져 있으므로 신라토기들이 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될지는 의문이라는 견해도 있다.⁴³⁾

바. 강릉 사천 석교리토성(石橋里土城)

석교리토성(石橋里土城)은 강릉시 사천면 석교리의 서쪽 평지에 인공적으로 쌓은 원형의 토성이다. 이곳을 토성마을이라고 한다. 이 성은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 처음 보이는데, 土壘이며 고려시대 萬戶僉事廳址로 소개되었다.⁴⁴⁾ 『한국지명총람』에는 土城, 『문화유적총람』에는 土壘로 소개되어 있다.⁴⁵⁾

석교리토성은 평면 원형의 평지성이고, 전체 길이는 약 397m 정도이다. 성벽은 단면 사다리꼴로 약간의 기와, 석재를 섞어 흙으로 축조하였다. 성벽의 높이는 1.5~2m 정도로 낮으며, 매우 잘 남아 있다. 문지는 남쪽과 북쪽 가운데에 있으며, 토성벽에는 소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다. 성내에는 와편이 산재하고, 민가가 여러 가구 있다. 성의 남쪽에는 沙川川이 흐르며, 그 주위로 넓은 농경지가 펼쳐진다. 최근 토성 남서쪽 성벽 외측을 발굴조사하여 해자(垓字)의 흔적을 확인하였고, 기와, 자기편 등 고려시대 유물이 출토되어 구전과 일치한다는 점이 밝혀졌다.⁴⁶⁾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토성과 垓字의 사용연대는 토성의 지표 및 垓字 내부에서 기와편들이 수습되어 麗末鮮初의 것으로 추정된

43) 신호웅·이상수, 「溟州郡의 關防遺蹟陶窯址」, 『溟州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學術叢書5, 1994, 250~251쪽, 橋虛城.

44) 朝鮮總督府,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1942, 537쪽, 江陵郡 11번 城址, 沙川面石橋里, 私宥, “... 土壘ニシテ ... 중략 ... 高麗時代ノ萬戶僉使廳址ト稱ス.”

45)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2-강원편-』, 1967, 83쪽.
문화재관리국, 『문화유적총람』 上, 1977, 451쪽.

46) 강원문화재연구소, 『강릉 신복사지 -부록 강릉 석교리 473-7번지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학술총서75책, 2007; 유재춘, 「동해안의 수군 유적 연구-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이사부와 동해』 창간호, 한국이사부학회, 2010, 39쪽).

다 <도판 5> .47)

이 성은 규모가 작은 土城이므로 고려시대에 축조된 地域土豪 또는 萬戶僉事廳址로 추정하고, 고려시대 지방 세력가의 莊園의 담장으로 판단하기도 한다.⁴⁸⁾ 만호첨사청이라는 傳言을 근거로 고려시대 여진이나 왜구 방어와 관련될 토성일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도 있다.⁴⁹⁾

그런데 이 토성을 辛氏 富者가 쌓았다는 주민의 언급이 있어 소개한다.

- 石橋里 1반의 자연지명으로 노동하리와 경계지역이며, 현재 城內의 475번지에 살고 있는 崔容澈(76세)翁에 의하면 옛날 辛씨성을 가진 이 마을의 큰 부자가 흙으로 성을 쌓았으며, 토축 성벽을 파면 기와편과 잡석이 섞여 나온다고 한다.⁵⁰⁾

이 성은 평지에 낮은 토루로 축조하였으므로 군사적 방어시설로는 매우 취약하고, 필자가 검토하는 배후산지에서 내려오는 능선의 말단부를 이용한 산성들과는 다르다.⁵¹⁾ 그러나 기와를 섞어 토루를 축조한 점, 출토유물이 고려시대 만호 전설과 일치하는 점, 신씨부자 전설처럼 지역토호가 축조했을 가능성도 시사하는 점에서 평면‘∩’자형 산성의 성격이 포착된다.

47) 江原文化財研究所, 『江陵邑城』, 學術叢書 57冊, 2006, 33쪽.

48) 金興術, 「江陵地域 城郭研究」 『臨瀛文化』 23, 江陵文化院, 1999, 石橋里城址, 83~84쪽 및 91쪽.

49) 유재춘, 「동해안의 수군 유적 연구-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이사부와 동해』 창간호, 한국이사부학회, 2010, 40쪽.

50) 金興術, 「江陵地域 城郭研究」 『臨瀛文化』 23, 江陵文化院, 1999, 石橋里城址, 83쪽, 각주 80번.

51) 석교리토성은 나말여초 호족들이 쌓은 지방세력들의 지배거소라는 의미에서 居館의 성격의 居館城과 비교도 가능하다. 나말여초 성지와 호족들의 거관성에 대한 연구는 다음 글을 참조.

성정용·이성준, 「大田 九城洞土城」 『百濟研究』 34, 2001, 175~202쪽.
 朴淳發, 「湖西地域 平地·野山城에 대하여-築造時點 및 性格을 中心으로-」 『湖西考古學』 10, 2004, 45~61쪽.

사. 강릉 성산 금산리 명주성(溟州城)

溟州城(명주산성)은 강릉시 성산면 금산2리 산7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소곡지를 산 능선이 둘러싼 평지 포곡식 산성(토성)이다. 북쪽의 산 능선과 좌·우 가지능선이 말굽처럼 北高南低의 평면 ‘∩’자형 山勢이고, 그 능선 상면은 평탄하게 정지되어 성벽의 역할을 하며, 남쪽은 트여져 평지와 이어져 출입구 역할을 한다. 성의 앞(남쪽)은 넓은 들이 펼쳐지고 하천이 흐른다. 산성의 내부는 입구부를 제외하면 구릉지대이다.

산성의 둘레는 1,624m이다. 성내의 시설물로는 문지 5개소, 곡성 4개소, 망대지 4개소, 우물지 1개소, 건물터 등이 확인되었다. 채집 유물로는 ‘명주성’명 수막새를 비롯하여 통일신라~고려 시대의 평기와류 및 토기편, 청자편, 백자편이 수습되었다.⁵²⁾

명주성에 대한 기록은 『고려사』에서부터 나오지만,⁵³⁾ 이 명주성이 지금의 금산2리에 있는 이 산성을 말하는지, 아니면 지금의 강릉읍성(강릉대도호부)을 말하는지는 알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이곳 명주성에서 ‘溟州城’명 수막새가 여러 점 수습되었고, 이 일대가 上長安, 下長安으로 불리므로 溟州郡王 金周元이 도읍했던 터로 보기도 한다.⁵⁴⁾ 이 성에 대한 최초의 현장 설명은

52) 관동대학교 박물관, 『江陵 溟州山城—地表調査報告書—』, 학술총서 43책, 2009, 53쪽.

53) 『高麗史』 卷82, 志36, 兵2, 城堡條(1034), “德宗三年修溟州城.”

『高麗史』 卷103, 列傳16, 金就礪條(?~1234), “... 金就礪彥陽人 ... 追至溟州大關山嶺將卒怯懦退屯旬日乃進賊已踰嶺矣 中軍左軍前軍復追賊至溟州毛老院敗之獲玉帶金銀牌器仗 賊圍溟州四軍追之後軍不及 ...” 이 기사의 명주는 ‘賊圍溟州...’라는 표현으로 보아 명주성의 줄임말로 생각된다.

『고려사』에는 江陵城이라는 명칭도 보인다(『高麗史』 卷20, 世家20, 明宗2, 明宗24年 2月條(1194), “... 庚申 左道兵馬使崔仁率銳卒數千擊賊 至江陵城設伏以待賊至執 ...”).

그다지 주목받지는 않지만 『三國遺事』 卷3, 塔像 第4 洛山二大聖 觀音正趣, 調信條에도 1258년 몽고의 침입시 溟州城이 등장한다.

54) 江陵古蹟保存會, 『增修臨瀛誌』 1933, 城池條, 溟州城.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서 토석혼축성이며, 말밭급형으로 명주군왕의 居城, 長安城址라고도 칭한다고 소개되어 있다.⁵⁵⁾ 그동안 이 산성은 거의 방치되어 왔었고, 2007년도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되었다.⁵⁶⁾ 이후 명주성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를 통해 기본적인 이해의 자료가 제공되었다.⁵⁷⁾ 특히 이 지표조사에서 ‘溟州城’명 수막새 1점을 수습하여 傳言대로 이곳에서 ‘명주성’명 수막새가 채집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나아가 이 ‘명주성’명 수막새가 거의 대부분 이 성에서 출토된 것으로 보아⁵⁸⁾ 이 산성이 명주성임을 분명히 알려준다. 이러한 문헌 및 고고자료를 근거로 명주성을 통일신라~고려시대의 산성으로 통일신라 9주의 하나인 溟州의 治所城으로 추정한다.⁵⁹⁾

그런데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읍토성(둘레: 784보)이 보이고, 문종 원년 11월에 강릉읍성(둘레: 3720척)을 축조하기 위하여 본부(강릉)와 평창, 영월, 정선군인 1556명이 동원되었다는 기록이 있다.⁶⁰⁾ 이 기사의 성은 지금의 강릉대도호부성이다. 왜냐하면 고려시대의 건축물인 객사문[국보 51호]이 존재하므로⁶¹⁾ 적어

55) 조선총독부,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1942, 강원도 강릉군 16번, 城址, 城山面 金山里, “江陵ノ西約一里江陵ヨリ原州ニ通セル小丘上ニ在リ土石混築ノ城址ニシテ殆ト崩壞シ僅ニ城壁址略馬蹄形ニ斷續セリ一般ニ溟州郡王ノ居城ニシテ長安城址ト稱セリ.”

56) 이상수, 「명주성지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 『명주성의 보존실태와 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 관동대 영동문화연구소, 2007.
김홍술, 「명주성의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 『명주성의 보존실태와 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 관동대 영동문화연구소, 2007.

57) 관동대학교 박물관, 『江陵 溟州山城』, 학술총서 43책, 2009.

58) ‘명주성’명 수막새 총6점 가운데, 1점만 강릉 굴산사에서 채집되었고, 5점은 명주성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해지거나 확인되었다(관동대학교 박물관, 『江陵 溟州山城』, 학술총서 43책, 2009, 114쪽).

59) 이상수, 『溟州와朔州의 治所城-位置比定을 中心으로-』, 『강원의 신라-문화와 역사-』, 국립춘천박물관 특별전 연계 학술심포지움, 2013, 51~67쪽.

60) 『世宗實錄地理誌』 江原道 江陵大都護府, “邑土城, 周回七百八十步.”
『文宗實錄』 江陵邑城, “周回三千七百二十尺 役本府及平昌寧越旌善軍人一千五百五十六名 ….”

61) 다만 후대의 기록이지만 임영관이 고려 태조 19년(936)에 세운 것으로

도 이 시기부터는 읍치가 이곳 일대이고,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금산리 장안성을 통일신라기 명주의 치소성으로 보는 공통점이 있지만, 고려 초기 이후,⁶²⁾ 13세기 이후,⁶³⁾ 고려말 이후⁶⁴⁾에 지금의 강릉대도호부 일대로 옮겨갔다는 차이가 있다.

강릉대도호부 자리인 강릉읍성은 발굴 결과에 의하면 『세종실록지리지』의 기록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고려시대에 土城으로 축조되어 있었고, 조선시대에 들어와 석축으로 축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 토성의 初築 시기는 적어도 고려 말 이전에는 축조되었고, 인근의 관아지, 임영관지 발굴조사에서 고려 초기까지 올라가는 관아 건물지가 확인되므로 읍성의 축조시기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는 없지만 고려 초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제시하였다.⁶⁵⁾

명주성은 구간에 따라 능선(성벽)의 바깥이나 능선(성벽)의 내부에 돌들이 많이 사용되었으므로 토축과 석축을 부분별로 혼용하였지만, 대부분의 구간에서 산 능선을 이용하였으므로 토성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산성의 현상을 『고려사』의 기록을 고려하면, 석심토축(石心土築)의 토루 성벽을 1차 성벽으로 만들었다가 2차로 성벽의 바깥에 석축 면석을 덧붙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 석축 면석이 덕종 3년에 개수하여 쌓은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성벽 외벽의 돌들이 규격화된 면석들도

되어 있어 이를 따르면 고려 초기부터 강릉대도호부 일대가 치소성으로 볼 수 있으나 후대의 기록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高麗 太祖 19년(936)에 東原京이라 부르고 臨瀛館을 세웠다는 『關東誌』의 기록과 부합한다(『關東誌』 권10, 江陵 上 江陵府邑誌 建置沿革).

62) 金興術, 「江陵地域 城郭研究」 『임영문화』 23, 江陵文化院, 1999, 53쪽.

63) 이상수, 「溟州와 朔州의 治所城」 『臨瀛文化』 37, 강릉문화원, 2013, 107~108쪽.

64) 유제춘, 『韓國 中世築城史 研究』, 경인문화사, 2003, 77~79쪽.

65) 江原文化財研究所, 『江陵邑城』, 學術叢書 57冊, 2006, 86~88쪽.

아니고, 돌의 크기와 모양이 일정하지 않으며, 질서정연하게 쌓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고려시대의 축조기법으로 보인다.

이러한 산성의 현상을 고려하면 필자도 명주성이 통일신라나 고려시대에 치소성의 기능을 하였다고 판단한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고려사』에 나오는 목종 대의 명주[강릉]성보다도 더 앞선 당대의 1차 사료를 주목하고 싶다. 즉, 굴산문 범일의 제자 낭원대사 개칭의 탐비문에 ‘郡城’이 나온다. 이 당대의 비문을 통해 통일신라 말기~고려 초기에 강릉 지역에 溟州郡城이 존재하였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⁶⁶⁾ 이렇게 보면 ‘명주성’명 기와가 금산리 장안성에서만 수습되고, 현재의 강릉대도호부 일대인 임영관지나 읍성지, 관아지 발굴 등에서 한 점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면 금산리 장안성이 통일신라시대 말기와 고려 초기에 적어도 치소성과 같은 기능이 있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溟州城’이라는 명칭에서 邑治의 성격을 갖고 있었던 城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고려시대 건물인 객사문이 현재의 강릉대도호부 일대에 존재하므로 고려시대 어느 시기에는 이 일대에 치소성이 있었음은 분명하나, 정확히 언제부터 이곳에 자리 잡았는지는 알기 어렵다.

이렇게 보면 이 일대가 대표적인 강릉김씨 동족마을이라는 점도 주목된다.⁶⁷⁾ 이곳 金山里는 강릉의 12鄉賢 중의 한 분인 臨鏡堂 金說의 부친인 김광현⁶⁸⁾이 세운 마을이라고 전해지며, ‘강금[建金]’이라는 지명도 있어⁶⁹⁾ 강릉김씨가 이 일대에 대하여 연

66) 「江陵 地藏禪院 朗圓大師 悟真塔碑文」, “... 大師此時 暫移慈蓋 來至郡城 尊州師勤王 讚邑人之奉佛 ...”

67) 전쇼 에이스케는 전국의 대표적인 특색있는 동족부락을 조사 소개하면서 강원도의 경우 각 군별로 1~2개를 소개하였는데 강릉군에서는 금산리의 강릉김씨 동족부락 1곳만을 소개하였다(善生永助, 『朝鮮の聚落』(後篇), 朝鮮總督府, 1935, 949쪽). 이로 보아 강릉에서는 강릉김씨 동족마을로 성산면 금산리(상장안, 하장안 일대)가 가장 대표적이라 볼 수 있다.

68) 현재 강원도유형문화재 제46호인 臨鏡堂 古宅이 명주성의 서쪽 능선 아래 평지에 자리잡고 있다.

고 의식 및 발상지 의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강릉김씨와 이 성의 관련성도 상정할 수 있다. 그 때문인지 이 성의 남쪽 출입부 입구 우측에는 1942년에 건립된 溟州郡王古都紀蹟碑가 세워져 있다.

아. 강릉 구정 학산리 왕현성(王峴城)

강릉 왕현성은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서 처음 나타나며, 이 성이 학산리의 북서쪽에 위치한 둘레 3백간의 土壘로, 長安城으로 부르며 穢國 때 축성하였거나 고려 우왕·창왕 때 축성한 것으로 나온다.⁷⁰⁾ 『한국지명총람』에서는 왕현성이 ‘왕고개’ 북동쪽에 있다고 구체적인 위치를 언급하였고, ‘장안성(터, 재)’이라고 하여 이 성이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의 왕현성임을 확인시켜 주며, 둘로 100m 짙은 자리가 남아있다고 서술하였다.⁷¹⁾ 『문화유적총람』에서는 왕현성을 ‘包谷式 石城’이라고 하였다.⁷²⁾ 지리학자 이준선은 「강릉지역의 고대산성」(1982)에서 이 성이 장안성으로 둘레 500m의 土·石混築城이고, 南壁直下에 井址가 分布한다고 우물의 존재를 처음 언급하였으며, 성 내부에 土器 및 瓦片이 散布한다고 하였다.⁷³⁾ 이후에도 왕현성은 『한국의 성곽과 봉수』

69)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2-강원편-』, 1967, 명주군 성산면 85쪽.

70) 朝鮮總督府,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1942, 江陵郡, 26번. 城址 下邱井面 鶴山里 私有, “江陵ノ南約一里鶴山里北西丘上ニ在リ土壘ニシテ周圍約三百間 一般ニ長安城址ト稱シ江陵ガ穢國ノ都タリシ際ノ築城トモ亦高麗恭讓王ノ時僞王辛隅辛昌ガ 築ケルモノトモ稱セリ.”

71)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2-강원도-』, 1967, 명주군, 77~78쪽.

• 장안-성터(長安城-)[장안재] 【고적】 왕고개 북동쪽에 있는 성터. 동남쪽 약 100m 둘로 짙은 자리만 남아 있는데, 고려 말엽 우왕이 이곳에 쫓겨 와 있었다 함.

• 장안-재 【고적】 → 장안성터.

72)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文化遺蹟總覽』 上, 1977, 溟州郡, 447쪽. 王峴城址.

73) 李俊善, 「江陵地域의 古代山城」 『地理學』 25, 大韓地理學會, 1982, 20~21쪽, 餘贊里의 王峴城.

에서도 소개되었고,⁷⁴⁾ 개인적 조사도 이루어졌다.⁷⁵⁾

왕현성은 관동대학교에서 서남쪽으로 가다가 섬석천을 가로지르는 梧桐橋를 지나자마자 바로 나타나는 낮은 고개[왕고개]의 도로 좌측 산에 위치한다. 구정면 보건지소의 뒷산이 곧 왕현성이다. 성의 내부는 단이 형성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밭, 상단에는 민가들이 있다. 남쪽 평지와 연결되는 입구부의 내부 좌우(동·서 능선 성벽) 양쪽으로 은행나무 2그루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은행나무는 500여 년의 수령을 가지고 있어 1982년에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또한 산성의 내부 서쪽[서벽쪽:왼쪽] 은행나무의 위쪽에는 ‘왕현산성지(王峴山城址)’ 표지석이 있는데, 그 뒷면에는 고려 우왕 전설과 함께 이 성이 삼국시대 이전에 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산성의 서쪽능선[서벽쪽]의 내부 가장자리를 따라서는 시멘트 도로가 있는데, 그 옆에는 도랑물이 흐르고, 동벽쪽[동쪽 능선] 내부의 밭 사이로도 도랑물이 흐른다. 왕현성의 축조기법은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서는 ‘토루(土壘)’라고 표현하였고, 『문화유적총람』에서는 ‘포곡식 석성’으로 언급하였다. 그런데 이준선이 「강릉지역의 고대산성」에서 토·석혼축성으로 서술한 이후 『한국의 성곽과 봉수』·「강릉지역 성곽연구」·『디지털강릉문화대전』도 이를 따르고 있다.

현장 조사 결과, 왕현성은 북고남저의 지형에 입지하였고, 자연적인 산의 능선을 활용하여 성벽과 길을 만들었을 뿐 능선[성벽]의 내·외측에 석축을 쌓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토성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왕현성의 북쪽벽에서 동벽으로 연결되는 구간과 동벽 일부 구간에는 내부쪽으로 강돌들이 깔려 있지만 토성 벽의 일부 구간의 필요한 지점에만 제한적으로 활용한 점에서 토·석혼축성으로 이름을 붙이기 곤란하다. 왜냐하면 ‘평지

74)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한국의 성곽과 봉수』 (상), 1989, 419~420쪽.

75) 金興術, 「江陵地域 城郭研究」 『臨瀛文化』 23, 江陵文化院, 1999, 78~81쪽.

포곡식 평면말굽형' 유형의 산성들은 산의 능선을 최대한 성벽으로 활용한 토성이면서, 일부 필요한 곳에는 약간의 돌들을 축조에 이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왕현성의 북쪽벽(능선)에서 동벽(능선)으로 이어지는 구간의 돌들은 강돌이 성의 외벽(외부)이 아니라 내벽(내부)쪽에 극히 일부분만 깔렸다는 점에서 담장이나 계단[출입로] 기능 등을 하였을 수도 있다. 동벽(능선)의 일부 지점의 내부 안쪽에 깔려 있는 돌들도 그 기능과 용도가 불확실하다. 이와 같이 왕현성의 경우 작은 돌들이 일부 한정된 곳에 敷石처럼 깔은 느낌을 주고 있어 축성 시기를 삼국시대까지 올리기가 어렵다.⁷⁶⁾ 성 내부에서 수습되는 토기 및 와편에 대해서 관동대 박물관은 성의 토축부와 외부 경사면에서 신라토기편과 청동기시대의 민무늬토기편을 약간 수집하였는데, 이는 本城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며, 이곳에 매장되어 있던 遺構가 성 축조시에 攪亂된 것으로 보았다.⁷⁷⁾ 기와편의 편년은 삼국시대나 통일신라시대까지 올라갈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성이 삼한(穢國) 시대에 처음 축조되었다고 전해져 오나 이를 뒷받침 할 수 없고,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에 축조되었다고 올릴 근거도 없다.

결국 왕현성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北高南低의 山勢를 이용하여 북쪽 능선과 서쪽 및 동쪽 능선을 성벽으로 삼아서 산의 능선이 성 내부를 안고 있고, 남쪽은 열려 평지와 연결되므로 평지 포곡식 산성이다. 왕현성의 축조 시기는 현재 특별한 단서는 없지만 이러한 유형의 산성이 많이 만들어진 시기와 우왕 및 창왕 전설을 고려하면 고려말기에 축성되었거나, 그 전에 존재하였다고 판단된다.

76) 신라 초기의 토성인 경주 월성의 토루는 비교적 큰 돌들이 토루 상면에 노출되어 있어 왕현성의 토루 석축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77) 關東大學校 博物館, 『溟州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學術叢書 5冊, 1994, 244쪽.

자. 강릉 강동 모전리 장안성(長安城)

강릉 모전리 장안성은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서 처음 나타나는데, 이 성이 土壘이고, 둘레가 350간으로 그 내부는 밭으로 경작되며, 기와편이 수습되고 穢國시대에 축조된 長安城址로 칭한다고 서술된 점 등이 주목된다.⁷⁸⁾ 이후 『文化遺蹟總覽』에서 이 성이 산의 능선을 따라 축조된 土石城으로 1km 가량의 둘레를 가지며, 穢國 때 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기술하였다.⁷⁹⁾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서는 이 성을 ‘토루’라고 하였지만, 『문화유적총람』에서는 ‘토석성’으로 표현한 차이가 있다.

이후 지리학자 이준선은 「강릉지역 고대산성」(1982)을 통해 모전리 장안성을 최초로 학술조사 하였다.⁸⁰⁾ 이 조사는 모전리 장안성이 강동국민학교의 북쪽 구릉의 소곡지에 위치하였다는 것을 처음 밝혔고, 당시까지의 현상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장안성은 석축부 위에 얇은 토축이 덮혀 있고, 남벽 중앙부에 문지가 있으며, 동벽은 양단부만 관찰되고 우물터가 부근에 분포했던 것으로 추정하면서 주위에 토기편과 기와편이 산재하다고 하였다.

그 후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⁸¹⁾ 관동대학교 박물관,⁸²⁾ 강릉대학교 박물관의 조사가 이어졌으나 기존의 조사 내용을 전재하였다. 다만 강릉대 박물관은 『江陵正東津高麗城址地表調査報告書』

78) 朝鮮總督府,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1942, 江陵郡, 25번, 城址, 資可谷面 茅田里, 私有, “江陵ノ東南約二里茅田里ノ後方自江陵至三陟道路ニ接セル丘上ニ在リ土壘ニツテ周圍約三百五十間内部ハ田トナリ瓦片散在セリ一般ニ穢國時代ノ築造ニ係リ長安城址ト稱セリ.”

79)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文化遺蹟總覽』 上, 1977, 449쪽, 溟州郡 長安城址.

80) 李俊善, 「江陵地域の 古代山城」 『地理學』 25, 大韓地理學會, 1982, 21쪽, 茅田里의 長安城.

81)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한국의 성곽과 봉수』 (상), 1989, 421~423쪽.

82) 關東大學校 博物館, 『溟州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學術叢書5, 1994, 243쪽 4. 長安城.

(1998)를 간행하면서 모전리 장안성을 토석혼축성이며, 산성의 길이(501m)를 확인한 점이 의미가 있다.⁸³⁾ 이와 함께 『문화유적 분포지도-강릉시-』(1998)에서는 장안성의 위치가 강동초등학교 뒷산에 표기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위치가 파악된다.⁸⁴⁾ 또한 『문화유적분포지도-강릉시-』에서는 長安城에 대하여 시대는 ‘未詳’으로 서술하였다.⁸⁵⁾ 한편 이 분포지도에는 장안성의 남쪽 구릉에 청동기시대 유물 산포지와 모전리 신라토기 산포지도 표기되어 있다.⁸⁶⁾ 이후 김홍술은 모전리 장안성이 그 명칭으로 보아 城이라기보다는 고대에 지역세력가의 私邸를 보호하는 垣牆의 개념으로 이해하였다.⁸⁷⁾

모전리 장안성과 관련된 지명 유래를 찾아보면 『한국지명총람』에서는 보이지 않으나,⁸⁸⁾ 『강릉지역 지명유래』에서는 장안성터, 둔지말, 병산이골, 장안재 등이 남아 있다.⁸⁹⁾

필자는 현지 조사 결과 장안성의 위치는 이준선의 조사 내용 및 『문화유적분포지도』에 표기된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 즉 필자는 이 장안성도 ‘∩’자 형태로 형성된 산의 서·남·북쪽 능선을 따라 능선 상면을 평탄하게 하고 내·외부를 삭토/성토하여 성벽으로 만든 ‘평지 포곡식 평면 말발굽형 산성(토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산성의 동벽은 평지이고, 그 옆으로 강릉과 삼척을 통과하는 7번국도(옛 동해고속도로)가 지나간다. 남벽의 동단

83) 江陵大學校 博物館, 『江陵正東津高麗城址地表調査報告書』, 學術叢書 18 책, 1998, 28~29쪽.

84) 강릉대학교 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강릉시-』, 1998, 123쪽 邱井(019).

85) 강릉대학교 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강릉시-』, 1998, 290쪽, 317번 長安城.

86) 강릉대학교 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강릉시-』, 1998, 290쪽, 318번 모전리 청동기시대 유물산포지 및 319번 모전리 신라토기 산포지.

87) 金興術, 『江陵地域 城郭研究』 『臨瀛文化』 23, 江陵文化院, 1999, 81~82쪽.

88)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2(강원도편)』, 1967, 명주군, 70쪽.

89) 김기설, 『강릉지역 지명유래』, 인애사, 1997(3쇄), 144쪽.

과 북벽의 동단이 7번국도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성의 내부는 밭이 있고, 풀이 많아 살피기 어렵다. 이로 인하여 남벽 쪽에 있다던 문지와 동벽 부근의 우물터 등을 찾을 수는 없었다. 다만 성의 내부에는 작은 도랑물이 흐르고, 기와편들이 수습된다. 이들 기와편 가운데 삼국시대 및 통일신라시대까지 올라가는 것은 없다. 이 성의 축성기법은 토루, 토석성, 토석혼축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었는데, 수풀 때문에 관찰하기 어려웠지만, 특별한 석축 구간을 찾을 수 없었다. 이 산성에서 제한적인 목적으로 석축이 일부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산의 능선을 성벽으로 활용한 토성(토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차. 동해 망상 심곡리성지(深谷里城址)

이 城은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 江陵郡 城址에 “망상면 심곡리 國有, 강릉의 동남 약 8리 심곡리 남쪽 山上에 있으며, 土城으로 주위는 약 4百間 성내에 와편이 산재하며, 일반에 古縣城址로 칭하며, 廢縣된 후 寺院이 건립된 일이 있다.”고 처음 소개된다.⁹⁰⁾ 이후의 자료인 『문화유적총람』과 『한국지명총람』에도 흥미로운 기사가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 낮은 야산의 능선을 따라 등글게 쌓은 1km 정도의 土, 石混築城으로 長安城 또는 安土城이라 부르는데 鎭將을 두었다고 전하고 혹은 大津里 봉화대를 지키던 軍兵이 주둔했다 전해지며 瓦片이 散在되어 있고 성의 윤곽만 알 수 있다.⁹¹⁾
- 장안-성(長安城) [長安土城] 【고적】 닷말 서쪽 산에 있는 옛 토성(土城). 둘레 약 1km쯤 되는데, 고려 때 병마(兵馬)를 훈련하던 곳이라 함 .

90) 朝鮮總督府,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 1942, 540쪽, 江陵郡 39번 城址.

91) 文化財管理局, 『文化遺蹟總覽』 上, 1977, 446쪽, 高峴城址, 명주군 목호읍 深谷里 山69.

장안-토성(長安土城) 【고적】 →장안성」.92)

산성은 山勢를 따라 ‘∩’자형의 평면과 ‘北高南底’의 토성이고, 출입부는 남쪽이다. 성의 내부는 평지와 계단식의 구릉이 이어 지는데, 과수원과 밭 등이 있으며 民墓도 있다 <도판 4> . 성의 남쪽 앞에는 마상천이 흐르고, 그 주위로 넓은 농경지가 펼쳐진다. 성에서는 동해고속도로와 영동선 철도, 동해안이 잘 보인다. 성의 둘레는 약 600m이며,⁹³⁾ 성 안에는 우물자리 1개소가 있고, 토기 및 기와편이 산재하는데, ‘ㄱ’자형 무늬 기와편이 발견되었다.⁹⁴⁾

남벽의 석축부분 밑에서는 적황색토와 크기가 Cobble 이하인 원력이 혼합된 상태로 관찰되고 그 표면이 회백색이며 견고한 점으로 보아 염분이 포함된 판축부로 보기도 한다.⁹⁵⁾ 또한 성벽 내벽의 기저부에 폭 30~40cm 정도의 석재를 서북벽 회절부까지 드문드문 이어 축조된 것이 확인되며, 서벽의 추정 서문지 부분은 황갈색과 흙갈색의 사질토를 교대로 盛土한 흔적도 있다.⁹⁶⁾

92)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2-강원편-』, 1967, 80쪽, 명주군, 목호, 深谷里.

93) 권순진, 「동해 심곡리성지에 대하여」 『박물관지』 2·3합집, 관동대 박물관, 2002, 36쪽 및 42쪽 지도 참조.

94) 李俊善, 「江陵地域의 古代山城」 『地理學』 25, 大韓地理學會, 1982, 22~23쪽. 이준선은 동해 심곡리성지의 둘레가 위 논문 22쪽에서 약 700m라고 하였다. 이 성에서 ‘ㄱ’자무늬 기와는 권순진도 수습 소개하였고(위 논문, 2002, 60쪽 사진 26 참조), 필자도 수습 소개하였다(앞 논문, 2010, 38쪽 사진 4 참조).

95) 方東仁·李昇哲, 「東海市の 關防·窯址·其他」 『東海市の 歷史와 文化遺蹟』, 關東大 博物館 學術叢書 11冊, 1996, 392~393쪽, 古峴城(長安城) 참조.

96) 權純珍, 「東海 深谷里城址에 대하여」 『博物館誌』 23합집, 關東大 博物館, 2002, 42쪽.

성벽 내외 기저부 일부와 문지 부분에 석재가 이용된 까닭인지 『문화유적총람』 및 김흥술은 土石混築城으로 보는데(金興術, 「江陵地域 城郭研究」 『臨瀛文化』 23, 江陵文化院, 1999, 87~88쪽, 高峴城址), 필자는 자연능선을 삭토/성토를 하여 성벽으로 활용하였고, 석재의 사용이 그다지 눈에 띄지 않으므로 토성으로 분류한다.

축성연대에 대해서는 고구려,⁹⁷⁾ 고려초기⁹⁸⁾로 보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심곡리성지는 성 내에서 삼국시대 유물이 수습되지 않았으며, 기와편은 고려시대 후기에서 조선시대로 편년되고, 토기와 자기류도 질그릇과 백자편들로 조선시대에 속하며, 성벽 축조방법도 통일신라 후기에 나타나는 성벽 기저부에 석열을 1~2단 쌓고 그 위에 조잡하게 성토한 양상을 보이고, 성 내부가 훤히 보여 전투용(방어용)산성으로는 불충분하므로 고구려와 신라의 접경지역에 쌓은 戰鬪用山城이 아니며, 入堡籠城 또는 治所의 성격의 성도 아닌 것으로 본다. 대신, 이 성이 고대 교통로의 연변이면서 驛路의 주변에 위치하므로 고려 후기에 축조되어 조선 중기까지 사용되다가 폐지되었던 驛路 주변의 소규모 倉城이나 牧馬場과 같은 성격으로 추정된 연구가 있다.⁹⁹⁾

필자는 성의 축조에 자연능선을 이용하였고, 기와류가 고려 후기~조선시대로 추정되므로 산성의 축성시기를 이 때로 보며, 鎭將을 두었다는 채록 내용으로 보아 萬戶 또는 千戶와 관련된 鎭城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한다.

카. 삼척 근덕 광태리성(光泰里城)

삼척 광태리성은 심의승이 1916년에 편찬한 『삼척군지』에서부터 찾아진다.¹⁰⁰⁾ 하지만 그동안 이 광태리성의 위치를 알 수 없는 상태였다.¹⁰¹⁾ 그러므로 이 기록을 불신하거나 주변의 다른 성

97) 臨瀛誌發刊委員會, 『臨瀛誌』, 1975, 218쪽.

98) 江原日報社, 『太白의 邑面』, 江原文化叢書9, 1975, 158쪽.

99) 權純珍, 「東海 深谷里城址에 대하여」 『博物館誌』 23합집, 關東大 博物館, 2002, 31~62쪽.

100) 沈宜昇, 『三陟郡誌』, 1916, 近德面 起源條, “...今光泰里新坪에城周約七十間의遺址가尙存호니라 ...”

沈宜昇, 『三陟郡誌』, 1916, 近德面 光泰里 舊蹟條, “新坪의舊城址는面誌所述과如히往時盛況이宛然을目擊함과如호며敏泰佛宇는交驛驛子等の所設이라其廢址年代는未詳호다.”

을 광태리성으로 불렀다고 보았다. 즉 여러 지리지에는 광태리성을 비롯하여 부남고성,¹⁰²⁾ 교가고성,¹⁰³⁾ 만향고현성¹⁰⁴⁾으로 불리는 성들이 교가역 옆에 있다고 기술되었는데, 광태리성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면서 이들의 실체도 혼란하였던 것이다. 그러다가 광태리성의 위치가 최근에 와서야 정확히 밝혀졌다.¹⁰⁵⁾ 이 위치 비정을 토대로 광태리성이 부남고성, 교가고성, 만향고현성으로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¹⁰⁶⁾

결국 광태리성은 광태리라는 행정구역 지역 내의 新坪이라는 자연 지명(마을)에 소재한다. 이를 단서로 『한국지명총람』을 찾아보면 ‘신평(新坪)’이 나오는데, ‘신평’을 한글의 뜻을 따라 ‘새-두루’[필자:새로운 들(판)]라고 부르며, 광택골 북쪽에 있는 마을로 새두루에 둘레 70칸의 성터가 있다고 서술되어 있다.¹⁰⁷⁾ 즉 심

101) 한편 최만희는 『진주지』(1963)를 편찬하면서 이 성이 “지금은 없어졌다”라고 기술하였다. 그 이유는 광태리성의 형태와 축성 방식이 석축성이 아니라, 산의 자연 능선을 성벽으로 이용한 토성인 까닭에 없어졌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동일한 이유로 이 성을 (산)성으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102) 김종언, 『陟州誌』 下, 1848, 城池, “府南古城古交柯古海利縣云” 『增補文獻備考』 卷二十八(1908), 輿地考十六, 關防四, 城郭四, “府南古城在南二十五里交柯驛”
최만희, 『眞珠誌』 卷一, 1963, 古蹟條, “府南古城在郡南二十五里交柯驛西新坪今廢.”

103) 『輿圖備志』 十五(1853~1856), 三陟都護府, 古城, “交柯古城有土築遺址”

104) 『大東地志』 卷十六(1861~1866), 三陟, 城池, “滿鄉古縣城交柯驛傍”

105) 정석교, 「삼척지역의 고대산성에 대한 지리적 고찰」 『悉直文化』 24, 삼척문화원, 2013; 이상수·김홍술, 『삼척의 관방유적』, 삼척시립박물관, 2017, 109쪽, 광태리산성 추정 위치 및 지형도에서 재인용).

정석교와 윤은숙은 이미 1984년에 삼척의 산성을 조사하여 발표한 바 있다(정석교·윤은숙, 「三陟地域의 古代山城에 관한 研究」 『關東』 15, 관동대학 학도호국단, 1984, 250~251쪽). 그들은 이 글에서 광태리성을 府南古城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하였는데, 신라시대의 성으로도 추정하였고, 광태리성의 위치를 지도로 표기하지 않았지만, 설명 내용은 현재 찾아진 광태리성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6) 이와 관련한 필자의 논증 과정은 다음 글 참조.

홍영호, 「강원도 동해안지역의 성포(城堡) 검토(3)-평면 말굽형 城址를 중심으로-」 『博物館誌』 25, 江原大學校 中央博物館, 65~96쪽.

의승의 『삼척군지』 근덕면 기원조에서 둘레 70칸의 성터가 광태리 신평에 있다고 기록된 내용과 『한국지명총람』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이다.¹⁰⁸⁾

광태리성은 위치와 규모, 축조방법과 관련하여 일제강점기의 자료인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조선총독부, 1942)에 소개된 다음 자료가 참고가 된다.

- 城址 近德面 光泰里 葛夜山城 國有林 三陟ノ東南約三里自同邑至蔚珍道路ノ西方約三町南大川ノ右岸小丘上ニ在リ土城ニシテ周圍約六百間處々破壞セリ一般ニ宰山城址ト稱ス.¹⁰⁹⁾

현재 찾아진 광태리성은 울진으로 가는 도로 옆에 있고, ‘토성(土城)’이므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의 설명과 일치한다. 다만 위의 내용 가운데 ‘남대천’은 삼척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하지만 필자는 광태리성의 출입부 앞쪽(동쪽:평지와 연결되는 열린 구간)에 마음천이 흐르는데, 우리말에서 ‘앞’이 ‘남’, ‘뒤’가 ‘북’으로 사용되므로 여기의 ‘남대천’은 성의 ‘앞(출입부)’에 있는 하천’을 의미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또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서 성의 둘레가 600칸이고, ‘재산성지(宰山城址)’로 부른다는 점도 주목된다 <도판 3> .

필자는 현장 조사 결과, 이 성이 『삼척군지』와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 수록된 광태리성이며, ‘평지 포곡식 평면 말굽형 산성’으로 분류한다. 우물도 남쪽 성벽의 끝 부분에 존재하므로¹¹⁰⁾

107)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2(강원도)』, 1967, 삼척군, 111쪽.

108) 『한국지명총람』의 광태골은 『문화유적분포지도-삼척시-』에는 광태리로 표기되어 이 일대의 중심 마을임을 알 수 있는데 그 북쪽에 ‘새두들’도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광태리성은 ‘새두들’내에 위치하지 않았고, 더 북쪽에 위치한 것으로 표기하였다(江原文化財研究所, 『文化遺蹟分布地圖(三陟市)』, 學術叢書 16冊, 2004, 105쪽 및 123쪽 참조). 즉 위의 책의 105쪽에 4번 光泰里古城이 표기되어 있으나 그 위치가 틀리다.

109) 朝鮮總督府,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 1942, 三陟郡 16번.

이 성은 거주 공간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 광태리 성 내부에는 기와편들이 산재한다. 전근대사회에서 기와가 건축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보건대 성에 거주하는 인물을 지배층(지역의 재지세력 또는 관리 등)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산성이 산이나 고개에 있어 성을 우리말로 ‘갯, 재’로 읽고, 한자어로는 ‘현(峴), 성(城)’ 등으로 쓰는데,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서는 광태리성을 ‘재산성지’라고 칭하며, ‘재’자가 한자로 ‘宰’라는 점이 주목된다. 이 ‘宰’자는 벼슬아치, 관리를 의미하므로 광태리성의 성격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유형의 성들에서 찾아지는 성격과 이 ‘宰’의 의미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광태리성이 위치한 곳은 남벽 능선 성벽 위 무덤의 묘비 내용을 볼 때 ‘만호곡(萬戶谷)’이다. 이를 통해 광태리성의 성격이 관리, 지배자와 연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도판 6·7> .

타. 삼척 원덕 호산리성지(湖山里城址)

金正浩의 『대동지지』와 『대동여지도』에는 원덕 호산리 일대의 가곡천[月川]과 바닷가 부근에 ‘城’이 표기되어 있다. 이 성은 옥원리성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문화유적총람』에도 옥원리성지가 소개되어 있다.¹¹¹⁾ 그러므로 호산리성지는 옛 문헌기록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110) 광태리성의 우물에 대해서는 광태리성의 북벽(북쪽 능선)쪽 아래에 있는 호수식당의 안주인으로부터 우물 자리는 남벽(남쪽 능선)쪽의 내부 배수로 5m 위에 위치한다고 확인받았다. 또한 그녀는 이 산을 ‘재산’으로 부르며, (7번)국도가 놓이기 전에 마읍천이 이 성 앞까지 들어와 호수처럼 되었고, 이 앞에 배도 머물렀다고 하였다.

111) 『大東地志』 卷16, 三陟, 倉庫條, “城倉(在沃原古城).” 文化財管理局, 『文化遺蹟總覽』 上, 1977, 469쪽, 삼척군 원덕면 옥원리 808, 조선 태조 2년(1393)에 축조하였고 주위 540m이다. 옥원성은 다음 논문을 참조(柳在春, 「驛에 대한 築城과 기능에 대하여-三陟 沃原驛城을 중심으로-」 『江原文化史研究』 3, 江原郷土文化研究會, 1998, 28~41쪽).

호산리성지는 총길이(둘레) 약 930m이고,¹¹²⁾ ‘北西高 南東底’山勢이다. 서벽 능선에는 오목하게 만들어 기저부만 낮게 석축을 한 문지도 있다. 북쪽에도 오목한 문지가 있으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사도는 완만한 편이다. 동남쪽은 열려 있고 나머지 모든 구간은 자연적인 능선을 성벽으로 삭토/성토하여 활용하였다. 성 내부는 평지와 구릉으로 이어지며, 기와류가 발견되는 평탄면이 있어 건물지도 곳곳에 있었다고 보인다. 출토유물은 어골문, 선조문, 격자문 등이 찍힌 기와 등이다. 성의 남쪽은 가곡천[月川]이 흘러 바다로 들어가며, 동쪽은 동해 바다이다. 성의 서쪽은 7번 국도가 지나가면서 다소 변형되었으나, 성의 전체 형태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니다 <도판 2>. 이 성이 위치한 산을 ‘재산’으로 부르는데, 단순히 ‘재(고개)가 있는 산’으로 볼 수 있지만, ‘재(갯)’가 城을 의미하므로 城을 인식하고 붙여진 지명일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통일신라시대 三陟郡의 위치 未詳 領縣인 竹嶺縣¹¹³⁾을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삼척시 남쪽인 원덕읍 옥원리에 있는 옥원역이 죽령현의 옛 터라고 언급¹¹⁴⁾한 이후, 허목의 『척주지』¹¹⁵⁾를 비롯한 많은 읍지와 지리지가 이 견해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沃原(驛)城은 규모도 매우 작고, 평지에 가까운 대지에 위치하여 쉽게 노출되며, 倉城, 軍倉, 積倉 등¹¹⁶⁾으로 기록되

112) 李相洙 外, 『국도7호선(북면~원덕간)도로확포장공사 예정지역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關東大 博物館 學術叢書 24冊, 2000, 13쪽. 토석혼 축성으로 보기도 하나(李相洙 外, 2000), 자연능선을 거의 그대로 활용하고, 석재는 문지의 기단부 정도만 사용한 점에서 토성으로 간주한다.

113) 『三國史記』 卷 第35(雜志 第4) 地理2, 溟州 三陟郡.

114)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4 三陟都護府 古蹟條, 古竹嶺縣.

115) 許穆, 『陟州誌』, 德蕃下條: 『輿地圖書』; 『三陟郡誌』(沈宜昇, 1916) 등.

116) 『世宗實錄』 卷153, 地理志 江原道 三陟條, “沃原驛土城周回一百八十步有倉三間無泉井.”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4, 江原道 三陟都護府 城郭條, “沃原城在沃原驛傍土築周五百七尺高八尺有軍倉.”

『陟州誌』 下, 德蕃下條, “... 沃原縣九十里我太祖二年築城周五百二十三

어 있으므로 삼척의 倉城이었고, 그 대신 호산리성지를 竹嶺縣의 治所城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그 근거로 호산리성지가 竹峴에 위치하고, 성의 규모가 비교적 크며(둘레 930m), 입지 조건상으로도 군사적·행정적인 복합기능을 한 현의 치소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들었다.¹¹⁷⁾ 나아가 고분, (산)성, 불교 유적이 현의 치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고분과 산성이 있는 지역인 호산리산성이 죽령현의 치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였다.¹¹⁸⁾ 그러나 호산리성지를 발굴한 결과 신라~통일신라 시대의 유물이 출토된 바 없고, 기와류도 고려 이후 조선시대에 걸치며, 도자류도 청자·백자·질그릇편만 수습되었으며,¹¹⁹⁾ 통일신라기의 뚜렷한 불교유적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죽령현의 치소로 연결시킬만한 자료가 아직 없다.

또한 현재까지 강원도 동해안에서 발견·조사된 삼국~통일신라 시대의 성들인 양양 후포매리 신라산성,¹²⁰⁾ 양양 임천석성(삼국

尺有積倉.”

『輿地圖書』江原道 三陟 城址條, “沃原城在府南九十里土築周五百七尺高八尺有軍倉.”

『輿地圖書』江原道 三陟府 倉庫條, “外沃原倉在府南一百里二十四間.”

- 117) 李相洙 外, 『국도7호선(북면~원덕간)도로확포장공사 예정지역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關東大 博物館 學術叢書 24冊, 2000, 13~14쪽.

李相洙, 「『三國史記』地理誌의 三陟郡 領縣에 대한 位置比定 摸索」 『博物館誌』 4, 關東大 博物館, 2005, 67~68쪽 및 80쪽.

이와 달리 필자는 삼척시 하장면 숙암리~태백시 구간 일대를 통일신라 시대 竹嶺縣으로 보는 견해를 제기한 바 있다(洪永鎬, 「三陟市 下長面 宿岩里 山城의 발견과 역사성 검토- 『三國史記』地理誌의 三陟郡 竹嶺縣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江原史學』 19:20合輯, 江原大學校 史學會, 2004, 1~17쪽).

- 118) 李相洙, 「『三國史記』地理誌의 三陟郡 領縣에 대한 位置比定 摸索」 『博物館誌』 4, 關東大 博物館, 2005, 67~68쪽.

- 119) 江原文化財研究所, 『三陟 湖山里遺蹟』, 學術叢書 128冊, 2013.

최근에 옥원리 일대에서 상당한 규모의 신라고분군이 발굴되었다(해동문화재연구원, 2012, 「삼척그린과워건설본부 사택예정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이로 보아 통일신라시대 때 이 일대가 주요한 지점이었음은 분명하므로 치소성이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듯하다.

말~통일신라시대),¹²¹⁾ 강릉 강문동신라토성, 고성 고성리산성(통일신라시대)¹²²⁾ 등은 모두 산 정상을 둘러싼 테피식이다. 반면, 삼척 원덕 호산리성지는 바닷가 평지에 입지하였고, 포곡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더구나, 호산리성지는 필자가 이 글에서 살피는 정보들과 동일한 입지 조건과 평면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정보들과 축조시기와 성격을 같이할 것이다.

실제 호산리산성의 내부에서는 고려시대 기와 건물지들이 발굴 조사되었고, 경부과상문호편(1:2:3호), 청자편(1:2:3호), ‘근’자명 기와(2호와 4호)와 ‘三陟郡’명 기와(3호)도 출토되었다.¹²³⁾ 경부과상문호편은 이 성의 상한을 시사하며, 기와를 얹은 건물지나 청자류들로 보아 유력인물이나 유력층이 거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三陟郡’명 기와의 글자는 반대로 찍혀 있고, 삼척의 鎭山인 갈야산성에서 출토된 기와의 글자는 바르게 찍혀 있어 차이가 있지만,¹²⁴⁾ 최근에 죽서루(삼척관아유적) 출토 기와의 글자는 반대로 찍혀 있어 동일한데,¹²⁵⁾ 이들 기와 모두 소성상태나 색깔이 흡사하다. 호산리산성에서 출토된 근자무늬 기와도 평면 말굽형 평지

120) 洪永鎬, 「양양 후포매리 신라 산성의 고찰」 『先史와 古代』 30, 韓國古代學會, 2009.6, 285~317쪽.

121) 이창현·김진형, 『襄陽 石城山城』, 江原文化財研究所 學術叢書 85冊, 2008.

122) 지현병, 「高城郡의 關防遺蹟」 『高城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江陵大博物館 學術叢書 10冊, 1995, 117~120쪽 및 136~137쪽 사진 참조.

123) 江原文化財研究所, 『三陟 湖山里 遺蹟-삼척 호산리 LNG 산업단지 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學術叢書 128冊, 2013, 268~269쪽.

124) 方東仁 외, 「三陟市의 關防遺蹟-窯址-社稷壇」 『三陟의 歷史와 文化遺蹟』, 關東大學校 博物館 學術叢書 9冊, 1995, 429쪽. 이 글에서는 ‘三陟郡 ...’명 기와를 근거로 갈야산성을 통일신라시대에 축성한 것으로 보았다. 갈야산성이 통일신라시대의 성일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三陟郡 ...’명 기와의 편년은 그 방증자료라 하기는 곤란한 셈이다.

125) 강원고고문화연구원, 「삼척 죽서루 주변 유적 3차 발굴조사 1차 학술자문회의자료」, 2013.8, 33쪽.

단 죽서루 출토 기와는 ‘三陟郡丁○○...’명으로 갈야산성 출토 기와의 명문과는 차이가 난다.

포곡식 산성의 축조시기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¹²⁶⁾

주요 출토유물의 편년을 보면, 해무리굽이 소멸된 후 등장하는 율형굽 형태의 청자완을 12~13세기, 1호 건물지 출토 소형의 완을 11세기 후반, 파상문이 시문된 도기호는 간략화되고 있어 10~12세기, 3호 건물지 출토 주름무늬병 저부의 편년은 11세기로 보고 있다. 또한 3호 건물지 출토 ‘三陟郡’ 명문와를 갈야산성 출토 ‘三陟郡戊子年○’명 기와와 비교하여 고려초인 성종(988)으로 유추해 볼 수 있고,¹²⁷⁾ 다른 기와들도 10~11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호산리성지에서는 신라고분(황혈식)이 단 1기뿐이고, 기와류는 어골문 기와류가 46.7%를 차지한다.¹²⁸⁾ 이렇게 보면, 통일신라시대까지 올라다 볼 유물들이 없다고 하겠다. 고고자료로 해석하면 호산리산성은 고려시대가 중심이며, 출토유물의 편년으로 보아 고려초기-전기에 이미 기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호산리산성은 고려시대의 治所城의 이자 官衙的 성격을 가진 그 일대의 행정적·군사적 중심 거점(마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126) 『高麗史』 兵志의 城堡조와 鎭戍조를 보면 목종(997~1009)대 이전에 축성된 성곽은 북계지역의 비율이 단연 많으나 목종대에는 동계지역의 축성비율이 약 50%로 변화한다. 이로 볼 때 목종대인 10세기 말에서 11세기 초에 해안지역에 대한 방비가 급격히 강화됨을 알 수 있고, 현종대에 동여진 해적이 경주를 침입하면서 경상도 해안지역에도 축성을 하고 있다. 결국 연해지역을 방어하기 위하여 이 시기에 전국 혹은 최소한 경남 지역의 성곽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신축 내지는 수개축을 시행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김갑진, 「나말여초 경상도 연해지역 관측토성 연구」 『문물연구』 24, 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2013, 59쪽). 즉 강원도 동해안의 성들도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 ‘군’자명 기와, ‘三陟郡’명 기와, ‘天慶’명 기와 등이 여러 성보에서 출토되는 것 같다.

127) ‘三陟郡戊子年○’명 기와의 편년은 다음의 글 참조.
朴東祐, 「羅末麗初期 강원지방 평기와 연구」 『先史와 古代』 35, 韓國古代學會, 2011, 270~271쪽.

128) 江原文化財研究所, 『三陟 湖山里 遺蹟-삼척 호산리 LNG 산업단지 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學術叢書 128冊, 2013, 268~269쪽 및 283쪽.

3. 축조시기와 성격 분석

앞의 장에서 살펴본 각 산성들의 축조시기와 성격을 밝히기 위하여 이들 산성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1> 과 같다.

<표 1> 강원도 동해안지역의 평지 포곡식 산성 현황

| 연번 | 지역/명칭 | 평면 형태/총둘레 자연적평면말굽형 (∩) 산성(토성) | 주요 유물 | 사료 및 주요 전설 |
|----|----------------------|--|--|---|
| 1 | 속초 속초리토성 | 【예문연】 733m 【고적】 (土築 三百間) | • 【예문연】 ‘天慶三年’명 (1113년) 기와, ‘立官舍’명 어골문기와 | • 【고적】 城址 • 【지명】 장골(장안골) |
| 2 | 양양 조산 大浦營城 | ” 【강릉박1】 550m 【고적】 (三百間 土築 一部石築) | • 신라토기편 • 와편 • 【총람】 초기철기시대 토기편 | • 【지명】 성안-말, 고려말 萬戶 趙仁璧이 이곳에 살면서 둘레에 성을 쌓음 • 【신증】 성종21년(1490) 安仁浦가 이곳으로 옮겨옴 |
| 3 | 양양 양양읍성 | 【지형병】 1,513m 【고적】 항목 無 | • 【한백연】 ‘天慶三年’명 (1113년) 기와, ‘立官舍’기와, ‘大德三年’명(1229년) 기와 | • 고려 穆宗 10년(1007) 襄州城 • 조선 태종 13년(1413) 석성(길이 403척), 토성(2,828척) 축성, 이후 『신증동국여지승람』 과 『여지도서』 에는 거의 동일 • 『세종실록지리지』 에는 토성으로 둘레 1,088보 |
| 4 | 양양 현북 廣丁鎭城 | 【강릉박1】 280m 【고적】 (二百間 土築) | • 와편(어골문 등) | • 【향토】 女眞, 倭寇를 방어하던 鎭터 |
| 5 | 강릉 언곡 坊內里城址 | 【홍영호】 미상 【총람】 1km - (포곡식토성) 【고적】 항목 無 | • 와편 • 신라토기편 출토 • 신라-통일신라고분군 주위 분포 | • 【총람】 조선시대 현감이 있었던 縣城 |
| 6 | 강릉 사천 石橋里土城 | 인공 원형 토성 【강문연1】 397m 【고적】 (土壘 三百間) | • 와편(어골문 등) | • 【고적】 고려시대 萬戶僉事廳址 • 【지명】 토성마을 • 【김홍술】 辛氏富者가 흙으로 성을 쌓음 |
| 7 | 강릉 구정 王峴城 (학산) | 【강문연】 500m 【고적】 (土壘 三百間) | • 와편 | • 【고적】 長安城址, 穢國 都邑 때 축성, 고려 공양왕 때 辛隅, 辛昌이 축성 |

| | | | | |
|----|----------------------|----------------------------------|--|---|
| 8 | 강릉 성산 명주(산)성 | 【관동박】 1,624m 【고적】 (土石混築, 馬蹄形) | • ‘溟州城’명 수막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수】 ‘명주성’명 수막새 채집 • 【고적】 溟州郡王의 居城 長安城 |
| 9 | 강릉 강동 長安城 (모전) | 【강릉박2】 501m 【고적】 (土壘 三百五十間) | • 와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적】 穢國時代 築造 長安城址 |
| 10 | 동해 망상 深谷里城址 | 【권순진】 600m 【고적】 (土城 四百間)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동박】 와편(어골문, 근자무늬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적】 古縣城址 • 【중립】 高峴城址, 鎭將, 長安城(장안토성) 또는 安土城, 大津里 봉화대를 지키던 軍兵 주둔 • 【지명】 고려 때 병마를 훈련하던 곳, 장안성(장안토성) |
| 11 | 삼척 근덕 光泰里城址 | 【이·홍】 600m 【고적】 (土城 六百間) | • 와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적】 幸山城址 |
| 12 | 삼척 원덕 湖山里城址 | 【이상수】 930m 【고적】 항목 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와편(어골문 등) • 【강문연2】 어골문·선조문·격자문 기와, ‘근’자무늬기와, ‘三陟郡’銘 기와, 청자, 신라 황혈식석실분 1기, 고려시대 건물지 4기 등 | |

이 <표 1> 에 의하면 이 글에서 다룬 12개의 성들 가운데 둘레가 1500m급은 강릉 명주(산)성(1624m)과 양양읍성(1513m)에 불과하고, 1000m급은 강릉 연곡 방내리성지 1개이다. 나머지 9개의 성은 1000m 미만인데, 특히 500~600m가 5개이고, 삼척 원덕 호산리성지가 930m, 속초리토성이 733m, 양양 현북 광정진성이 280m, 사천 석교리토성이 397m이다. 그런데 1500m 이상인 두 성은 읍성과 관련되고, 1000m인 강릉 연곡 방내리성지가 현성과 관련이 된다면, 930m인 삼척 원덕 호산리성지도 현성의 가능성도 있겠다.

이 성의 축조시기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2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사료를 비롯하여 전승되어 온 문헌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고고자료이다. 사료로는 강릉 명주(산)성이 통일신라말~고려전기, 양양읍성이 고려~조선시대, 속초리토성[속초포

진]은 조선초기에 존재한다. 고고자료로는 속초리토성에서 ‘天慶’명 기와, 양양읍성에서 ‘(天慶)癸巳’명 기와와 ‘大德’명 기와가 출토되어 이들 성이 고려시대에 존재하였음을 시사해 준다. 특히 ‘근’자무늬(근+사격자문) 기와가 동해 심곡리성지와 삼척 호산리성지에서 수습되어 주목된다. 이 기와는 동해 어달산 봉수대, 강릉 정동진 고려성지, 강릉 정동진 등명사지, 강릉 옥계 우계산성, 강릉 산성우리 삼한산성, 삼척 갈야산성, 삼척 호산리성지, 정선 임계 새을기(寺乙基) 절터 등 강릉이남~삼척 일대에서 수습되고 있다. 이 기와 편년의 하한은 동해 어달동 봉수대 남쪽 약 1km 지점의 해발 217m 정상에서 발견된 조선시대 초기의 봉수터 자료가 도움이 된다. 이곳은 산불감시초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백자와 ‘근+사격자문 기와’가 수습되었다. 수습된 백자류는 15~16세기 후반으로 편년되므로, 봉수터는 그 보다 선행하는 조선시대 초기로 추정한다.¹²⁹⁾ 이 기와의 하한을 시사하는 것이다. 상한은 이 기와가 발견된 유적들의 중심시대가 고려시대이므로 이 시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¹³⁰⁾ 실제 ‘근자무늬’기와가 출토된 삼척 호산리성지 내부에서 고려시대 유구와 유물만 조사되는데, 유구는 규모로 보아 관아지로 추정하면서 ‘三陟郡’명 기와를 근거로 10세기 후반에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자기 등을 통해서 11세기 후반~13세기까지 유적이 존속되었다고 추정하였다.¹³¹⁾ 결국 ‘근+사격자문 기와’의 상한은 고려시대까지 올라가며, 어달동 추정 봉수대로 보아 조선 초기·전기까지를 하한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 성의 축조시기와 중심시기도 고려시대~조선 초기·전기에 걸칠 것이다 <도판 8·9·10·13·14> .

129) 江陵大 博物館, 『東海 於達山 烽燧臺』, 學術叢書 33冊, 2001, 33-57-63쪽.

130) ‘근+사격자문’ 기와의 상한을 논증하는 과정은 필자의 다음 글 참조. 홍영호, 「강원도 동해안지역의 성보(城堡) 검토(1)」 『博物館誌』 17, 江原大 學校 中央博物館, 2010, 28~30쪽.

131) 江原文化財研究所, 『三陟 湖山里遺蹟』, 學術叢書 128冊, 2013, 305쪽.

전승되어 오는 문헌자료도 고고자료의 분석과 일치하여 주목된다. 즉 양양 대포영성은 고려말 조인벽 설화, 양양 광정진성은 여진과 왜구를 방어하던 진터, 사천 석교리토성은 고려시대 만호첨사청지, 강릉 왕현성은 우왕과 창왕 설화 등이 전해지므로 이들 성이 고려와 조선초기에 존재하였음을 시사해 준다. 삼척 근덕 광태리성지도 ‘만호곡’ 지명의 ‘만호’라는 명칭에서 이들 성과 동일한 시기에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문헌 및 전승자료와 고고자료가 서로 일치하므로 이들 성의 축조시기와 성격을 해석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다 <표 2> .

반면 예국시대나 삼국시대에 축조되었다고 전승되어 오는 일부 성들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고고자료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양양 대포영성이나 연곡 방내리성에서 철기시대 토기편 또는 신라토기편이 수습되었거나 주위에 신라고분이 있어도 이들 유물과 유적들이 성의 축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조사 당시에 고고자료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여 축조시기를 잘못 인식하는 경우도 많았다. 더구나 이들 성에서 발견되는 기와류도 삼국시대나 통일신라시대의 기와가 거의 없다.

이들 성의 성격은 속초 속초리토성, 강릉 명주성, 강릉 왕현성, 강릉 장안성, 동해 심곡리성지가 首都를 의미하는 ‘長安城’이므로 그 지역의 행정적 거점성(거점마을)을 의미하고,¹³²⁾ 양양

132) 이준선은 평지의 야산에 만든 이들 산성을 신라하대에 지방호족(지방토착세력)들이 자신의 세력기반을 과시·지칭하고 自衛를 위한 방어시설이며, 고산지대에 있는 성들은 후삼국시대에 평지 야산성 축조 집단과 대립하는 집단이 만들었다고 본다(李俊善, 『江陵地域의 古代山城』 『地理學』 25, 大韓地理學會, 1982, 24~26쪽). 그러나 필자는 이들 산성의 대부분이 고려~조선 전기에 해당하고, 평지야산성과 고산지대에 있는 성이 서로 대립한다고 보지 않는다.

〈표 2〉 강원도 동해안지역의 평지 포곡식 산성의 축조 및 운영 시기 현황[필자안]
(음영: 축조 및 운영의 중심 시기, —: 상한 및 하한 추정 시기)

| 구분 | 삼한 | | | 삼국 | | | 통일신라 | | | 고려 | | | 조선 | | |
|-------------------------|----|--|--|----|--|--|------|---|---|----|---|---|----|---|---|
| 속초 속초리토성 (장안성) | | | | | | | | | | | ■ | ■ | ■ | | |
| 양양 대포영성 | | | | | | | | | | | | | ■ | | |
| 양양 읍성 | | | | | | | | | | ■ | ■ | ■ | | | — |
| 양양 현북 광정진성 | | | | | | | | | | ■ | ■ | ■ | ■ | | |
| 강릉 연곡 방내리토성 | | | | | | | — | — | — | — | — | — | ■ | | |
| 강릉 사천 석교리토성 | | | | | | | | | | | | | ■ | ■ | |
| 강릉 성산 명주산성 (장안성) | | | | | | | — | — | — | ■ | ■ | | | | |
| 강릉 구정 왕현성 (장안성) | | | | | | | | | | | | | ■ | ■ | |
| 강릉 강동 장안성 (장안성) | | | | | | | | | | | | | ■ | ■ | |
| 동해 망상 심곡리성지 (장안성) | | | | | | | | | | | — | — | ■ | ■ | |
| 삼척 근덕 광태리성지 | | | | | | | | | | | | | ■ | ■ | |
| 삼척 원덕 호산리성지 | | | | | | | | | | ■ | — | | | | |

대포영성, 양양 광정진성, 사천 석교리토성, 동해 심곡리성지, 삼척 광태리성지는 ‘萬戶’ 및 ‘鎭將(진터, 군병 주둔, 봉화대 관리 등)’과 관련되므로 군사적 거점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행정적 지배자가 군사적 지휘관을 겸하거나, 군사적 지휘관이 행정적 지배자를 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들 성의

성격은 그 지역의 행정적 지배거점이나 군사적 거점으로 볼 수 있다. 이들 거점에는 중앙에서 행정 관리나 군사 지휘관을 파견할 수도 있지만, 지방토착세력이 그 지위와 역할을 맡을 수도 있겠다. 특히 읍성이나 현성의 규모가 아닌 작은 성들의 경우는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속초리토성과 양양읍성에서 ‘官舍’명 기와가 출토되었고, 명주성도 ‘溟州城’명 기와가 출토되었으며, 연곡 방내리토성은 조선시대 현성으로 전해지고, 동해 망상 심곡리성지는 古縣城址로 전해지는 것이며, 일부의 성은 수도의 의미인 ‘長安城’으로 전해지게 된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고려말기에 萬戶는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이고, 千戶는 지방의 토착세력이 맡는 직임으로 구분되며,¹³³⁾ 萬戶도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만호와 재지토호로 임명되는 만호가 있다고 한다.¹³⁴⁾ 그렇다면, 이 글에서 다루는 성들은 토착세력인 만호 및 천호 중심의 큰 마을, 또는 신씨부자 전설처럼 그 지역의 토착세력이 자신의 거처와 집단을 과시·방어하는 목적으로 행정 및 군사적인 거점¹³⁵⁾ 기능으로 축조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¹³⁶⁾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산성이 등장하고 운영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찾아보아야 하겠다. 이를 위하여 이들 성의 축조시기를 정리해보면 강릉 명주산성은 통일신라 말기와 고려초기·전기에 운영된 것으로 추정되고, 삼척 호산리성지는 고려초기~전기에 축조되어 운영된 것으로 추정되며, 속초 속초리토성과 양양읍성

133) 張學根, 「朝鮮前期水軍萬戶考」 『海士論文集』 26, 1987, 9~38쪽.

134) 吳宗祿, 「朝鮮初期의 邊鎮防衛와 兵馬僉使萬戶」 『歷史學報』 123, 1989, 102쪽.

135) 박순발은 신라말 고려초에 호족세력이 지방에 자신들의 거점으로 축조한 성을 居館的 성격의 城으로 표현하고, 후에 지방행정의 치소와 일치하는 예도 있으므로 邑城으로 발전하였다고 본다(朴淳發, 「湖西地域平地野山城에 대하여-築造時點 및 性格을 中心으로-」 『湖西考古學』 10, 2004, 45~61쪽).

136) 홍영호, 「강원도 동해안지역의 성묘(城堡) 검토(1) -평면 말굽형 城址를 중심으로-」 『博物館誌』 17, 江原大學校 中央博物館, 2010, 31쪽.

에서는 ‘天慶三年’명(1113년) 기와가 출토되므로 고려 전기에 운영되었을 것이다. 나머지 성들은 고려말기~조선초기에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¹³⁷⁾ 이러한 양상은 역사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 즉 고려말에는 倭長壽가 왜구를 막기 위하여 해변 마을에 城堡를 축조하고 200~300戶를 한도로 官守를 설치하여 주민을 수용하자는 상소를 올리고 있다.¹³⁸⁾ 이것은 고려말~조선초 왜구를 막기 위하여 水軍을 강화하면서 각 지역에 築城(修築·新築)을 추진하는 데에서 추정이 가능하다.¹³⁹⁾ 조선시대에는 柳廷顯이 對馬島 정벌 직후 海邊의 각 리에 30~40戶 단위로 屯을 만들고 屯城을 쌓아 주민을 入堡시킬 것을 제의하였고,¹⁴⁰⁾ 세종 16년(1434)에는 兵船이 정박하는 곳 외에는 각도 연변지역에 30리를 넘지 않게 柵堡를 설치하고 적이 상륙하면 각 柵이 서로 구원하도록 하였다.¹⁴¹⁾ 세종 24년(1442)에는 연변지역에도 屯城民堡 형태의 성을 축조하자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¹⁴²⁾ 이로 보아 이 글에서 다루는 성들의 일부는 고려말기~조선 초기·전기에 수군포진을 설치하여 왜구의 침입을 방어하고 연해지역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백성을 안집하면서 沿海民을 入保시키는 목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성들은 출입부가 평지와 연결되므로 쉽게 내부를 볼 수 있고, 방어 전면인 산성(토성)의 성벽 경사도 심하지 않은 까닭에

137) 몽고의 침입을 받은 고려는 山城海島入保政策을 실시하였고, 공민왕대에는 흥건적과 倭寇의 침입을 淸野策으로 막으면서 沿邊(沿海)지역을 포기하고 내륙의 산성으로 피난 입보하였다. 그러므로 이들 산성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었기보다는 단속적으로 운영되었을 것이다.

138) 『高麗史』 卷112 列傳 倭遜 附 長壽.

139) 車勇杰, 「高麗末 倭寇防守策으로서의 鎭戍와 築城」, 『史學研究』 38, 韓國史學會, 1984, 129~157쪽.

구산우, 「고려말 성곽 축조와 향촌사회의 동향」, 『역사와 경계』 75, 부산경남사학회, 2010, 233~273쪽.

140) 『世宗實錄』 卷4, 世宗 元年 7月 辛未.

141) 『世宗實錄』 卷64, 世宗 16年 6月 甲子.

142) 『世宗實錄』 卷97 世宗 24年 8월 辛卯.

대규모 적을 방어하기에는 효과적이라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이들 성이 고려전기 동여진의 침입과 고려말기 왜구의 침입 등과 같은 소규모 적을 방어하기 위한 입보용·둔전용 성이자,¹⁴³⁾ 행정적 거점으로서의 성채마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나아가 이들 성은 동해안에서 배의 피항과 정박을 고려하여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漕運과 海運의 거점 역할도 수행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¹⁴⁴⁾ 왜냐하면 삼척 호산리성지와 속초리토성은 각각 바닷가와 석호에 바로 붙어 입지하였고, 다른 성들은 바다에서 하천을 통해 들어가는 하천변에 연한 곳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표 1>에 나온 성들의 입지가 동일하며, 고고자료 및 사료와 전승자료로 보건대 이들 성의 대부분은 고려시대에 중앙관(외관)이 파견되지 않는 속현 같은 경우 토착세력이 지역의 행정관리자 지역방위를 주도하므로¹⁴⁵⁾ 그들의 거점이자 행정적 치

143) 이와 관련하여 다음 기사는 바닷가 평지에 城堡가 존재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高麗史』 卷82, 志36, 兵二 城堡, “문종 즉위년(1046)에 兵部郎中 金瓊을 보내어 東海로부터 南海에 이르기까지 沿邊에 城堡와 農場을 만들어 海賊의 要衝을 막았다.”

『高麗史』 卷9, 世家9, 문종 32년(1078) 9월 甲午, “都兵馬使가 奏하기를 “八助音部曲城은 바닷가 平地에 있으므로 자주 東路海賊의 來侵을 입어 백성들이 安居할 수 없사오니 請컨대, 그 城을 옮기게 하소서”라 하며 이를 聽從하였다.”

144) 고려시대에 準南道지역이나 南道지역에서 兩界로의 군량 수송은 陸路보다는 海路를 통해 이루어졌다. 원거리 海運을 통해 수송된 軍糧은 주요 浦口에서 하역된 뒤, 다시 陸路를 통해 목적지로 옮겨졌다(한정훈, 「고려 전기 兩界의 교통로와 운송권역」 『韓國史研究』 141, 2008, 151쪽).

145) 최중석, 「고려 전기 지역방어체계의 특징」 『史林』 40, 首善史學會, 2011, 137~171쪽.

최중석, 「고려말기 지역방어체제와 그 시대성」 『역사와 현실』 85, 한국역사연구회, 2012, 305~348쪽.

최중석, 「고려시대 지역방어체제의 변화 양상과 그 성격」 『韓國思想과 文化』 64, 한국사상문화연구원, 2012, 167~199쪽.

소(성)의 역할을 하며, 군사적 방어 거점 기능도 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일부는 양양읍성처럼 중앙관(외관)이 파견된 치소성도 있었을 것이다.

4. 맺음말

지금까지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분포한 자연적인 山勢를 이용한 평지 포곡식 평면말굽형(평면 ‘∩’자형) 산성을 살펴보았다. 이들 산성은 평지에 입지하고 산능선을 자연적인 성벽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대규모의 강력한 적을 방어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그동안 이들 산성의 축조시기와 그 성격이 매우 혼란스러웠다. 기존에는 이러한 형태와 입지를 가진 산성들에 대하여 지표조사 때에 수습한 극히 단편적인 유물을 근거로 예국시대(철기시대),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의 성 등으로 보았다. 그러나 필자는 당시 발굴된 산성이 아직 없었던 까닭에 고고자료가 부족하였지만, 이러한 산성들에 대하여 수습유물, 지명유래, 전설, 사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대부분이 고려시대(전기)와 고려말기~조선초기의 산성이며, 중앙관 또는 지방토착세력가의 행정적·군사적 거점(마을)이자 소규모 적의 침입시 입보를 겸하는 성격의 산성임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동일한 형태와 입지를 가진 산성인 삼척의 호산리산성과 양양의 양양읍성 및 속초리토성을 발굴하였는데 세 성 모두 통일신라기의 유물은 사실상 출토되지 않았고, 고려시대의 유물만 출토되어 필자의 주장이 옳았음이 증명되었다.

나아가 이들 성이 바닷가에 입지하고, 하천으로 성까지 연결

되고 있어 고려시대 東界의 海運을 위한 항구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들 성에 대한 사료 및 전승 자료와 고고자료가 서로 일치하므로 축조시기와 성격은 고려와 조선시대에 지방의 행정적·군사적 지배거점(마을)으로 규모에 따라 중앙관이 파견된 치소성이거나 그 휘하의 지방토착세력의 거점성이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투고일: 2019. 4. 3, 심사수정일 : 2019. 4. 25, 게재확정일 : 2019. 5. 7)

주제어 : 평지포곡식산성, 동계, 관사, 장안(성), 만호, 진장, 치소성, 지방 토착세력의 행정적 군사적 거점, 조운과 해운의 거점



〈도판1〉 속초리토성의 위치(1918,1:50,000)
(출전: 예맥문화재단연구원, 2014, 『속초 동명동유적』)



〈도판2〉 삼척 호산리산성 평면형태(출전: 강원문화재단연구소, 2013, 『삼척 호산리유적』)



〈도판3〉 삼척 광태리성지 원경(서→동)



〈도판4〉 동해 십곡리성지 근경(남→북)



〈도판5〉 강릉 사천 석교리토성 항공사진
(출전: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강릉 신
복사지』)



〈도판6〉 삼척 광태리성지 남벽(능선) 묘
와 묘비



〈도판7〉 삼척 광태리성지 남벽(능선) 묘
비(음기)“광태동만호곡물(...光太洞万户
谷殿...)” 문구



〈도판8〉 삼척 호산리산성 내 2호 건물지
출토 근자무늬 기와(출전: 강원문화재연
구소, 2013, 『삼척 호산리유적』, 139쪽).



〈도판9〉 동해 심곡리성지(傳 長安城 또는 安土城) 수습 어골문기와 및 근자무늬 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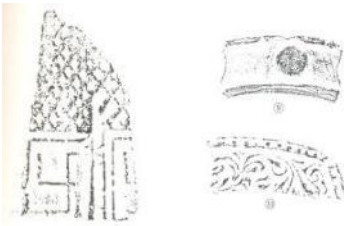
〈도판10〉 동해 어달산 추정 조선전기 봉수지 출토 '근'자 무늬 기와(출전: 강릉대 박물관, 2001, 『동해 어달산봉수대』, 57쪽).



〈도판11〉 속초리토성 '立官舍'명 기와-양양읍성 출토 '立官舍'명 기와를 근거로 필자가 '立'으로 판독함(출전: 속초 다운니네-東草愛人:blog.daum.net).



〈도판12〉 양양읍성 출토 '立官舍○ 造官舍'명 기와(출전: 한백문화재연구원, 2013, 『양양읍성』, 35쪽 및 158쪽).



〈도판13〉 강릉 정동진 등명사지 출토 근자무늬 기와 및 귀목무늬 기와(출전: 관동대 박물관, 1994, 『명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173쪽).



〈도판14〉 삼척시 갈야산성 수습 '근'자 무늬 기와1,2(출전: 관동대 박물관, 1995, 『삼척의 역사와 문화유적』, 451쪽).

<참고 문헌>

[사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高麗史節要』, 『太祖實錄』, 『成宗實錄』, 『文宗實錄』,

『世宗實錄地理誌』,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東國輿地誌』, 『關東誌』, 『關東邑誌』, 『增補文獻備考』, 『輿圖備志』, 『大東地志』, 『江陵地藏禪院 朗圓大師 悟眞塔碑文』

[읍지 및 지리지]

『陟州誌』(許穆), 『三陟郡誌』(沈宜昇, 1916), 『眞珠誌』(최만희, 1963), 『陟州誌』(김중언, 1848)

[단행본]

江陵古蹟保存會, 『增修臨瀛誌』, 1933

江原日報社, 『太白的 邑面』, 江原文化叢書9, 1975

김기설, 『강릉지역 지명유래』, 인애사, 1997(3쇄)

文化財管理局, 『文化遺蹟總覽』上, 1977

善生永助, 『朝鮮の聚落』(後篇), 朝鮮總督府, 1935

양양문화원, 『鄉土誌』, 1976

襄陽文化院, 『襄陽의 땅이름』, 1995

이상수·김홍술, 『삼척의 관방유적』, 삼척시립박물관, 2017

臨瀛誌發刊委員會, 『臨瀛誌』, 1975

朝鮮總督府, 『朝鮮地誌資料』, 1911~1912년경 편찬

朝鮮總督府,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 1942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한국의 성곽과 봉수』, 1989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2-강원편-』, 1967

[논문]

구산우, 「고려말 성곽 축조와 향촌사회의 동향」 『역사와 경계』 75, 부산경남사학회, 2010

- ; <http://uci.or.kr/G901:A-0002789905>
- 권순진, 『동해 심곡리성지에 대하여』 『박물관지』 2·3합집, 관동대 박물관, 2002
; <http://uci.or.kr/G901:A-0001947956>
- 김갑진, 「나말여초 경상도 연해지역 관측토성 연구」 『문물연구』 24, 동아
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2013
- 金興術, 「江陵地域 城郭研究」 『臨瀛文化』 23, 江陵文化院, 1999
; <http://uci.or.kr/G901:A-0001462540>
- 김홍술, 「강릉지역의 성곽연구」, 관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http://uci.or.kr/G901:A-0004891672>
- 김홍술, 「명주성의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 『명주성의 보존실태와
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 관동대 영동문화연구소, 2007
- 박경식, 「양양읍성의 정비와 복원의 당위성」 『양주성축성 1천주년 기념을
위한 학술토론회』, 양양문화원, 2004
- 朴東祐, 「羅末麗初期 강원지방 평기와 연구」 『先史와 古代』 35, 韓國古代
學會, 2011
; <http://uci.or.kr/G901:A-0003013400>
- 朴淳發, 「湖西地域 平地野山城에 대하여-築造時點 및 性格을 中心으로-」
『湖西考古學』 10, 2004.
; <http://uci.or.kr/G901:A-0002023521>
- 方東仁 외, 「三陟市の 關防遺蹟窯址社稷壇」 『三陟의 歷史와 文化遺蹟』,
關東大學校 博物館 學術叢書 9冊, 1995
; <http://uci.or.kr/G901:A-0008467781>
- 方東仁李昇哲, 「東海市の 關防窯址其他」 『東海市の 歷史와 文化遺蹟』,
關東大 博物館 學術叢書 11冊, 1996
- 성정용·이성준, 「大田 九城洞土城」 『百濟研究』 34, 2001
; <http://uci.or.kr/G901:A-0001667415>
- 신호웅·이상수, 「溟州郡의 關防遺蹟陶窯址」 『溟州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學術叢書5, 1994
- 吳宗祿, 「朝鮮初期의 邊鎮防衛와 兵馬僉使·萬戶」 『歷史學報』 123, 1989
; <http://uci.or.kr/G901:A-0000775059>
- 柳在春, 「驛에 대한 築城과 기능에 대하여-三陟 沃原驛城을 中心으로-」

- 『江原文化史研究』 3, 江原郷土文化研究會, 1998
 ; <http://uci.or.kr/G901:A-0002019166>
- 유재춘, 「동해안의 수군 유적 연구-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이사부와 동해』 창간호, 한국이사부학회, 2010
 ; <http://uci.or.kr/G901:A-0002802417>
- 유재춘, 『韓國 中世築城史 研究』, 경인문화사, 2003
 ; <http://uci.or.kr/G901:A-0006065830>
- 李相洙, 「『三國史記』 地理誌의 三陟郡 領縣에 대한 位置比定 摸索」 『博物館誌』 4, 關東大 博物館, 2005
 ; <http://uci.or.kr/G901:A-0002841094>
- 이상수, 「명주성지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 『명주성의 보존실태와 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 관동대 영동문화연구소, 2007
- 이상수, 「溟州와 朔州의 治所城-位置比定을 中心으로-」 『강원의 신라-문화와 역사-』, 국립춘천박물관 특별전 연계 학술심포지움, 2013
- 이상수, 「溟州와 朔州의 治所城」 『臨瀛文化』 37, 강릉문화원, 2013
 ; <http://uci.or.kr/G901:A-0003511810>
- 李俊善, 「江陵地域의 古代山城」 『地理學』 25, 大韓地理學會, 1982
- 張學根, 「朝鮮前期水軍萬戶考」 『海士論文集』 26, 1987
 ; <http://uci.or.kr/G901:A-0000673617>
- 정석교·윤은숙, 「三陟地域의 古代山城에 관한 研究」 『關東』 15, 관동대학 학도호국단, 1984
- 정석교, 「삼척지역의 고대산성에 대한 지리적 고찰」 『悉直文化』 24, 삼척문화원, 2013
- 지현병·전유길, 「襄陽郡의 關防遺蹟」 『襄陽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江陵大 博物館 學術叢書 5冊, 1994
- 지현병, 「高城郡의 關防遺蹟」 『高城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江陵大 博物館 學術叢書 10冊, 1995,
 ; <http://uci.or.kr/G901:A-0008486781>
- 池賢柄, 「襄州城의 性格과 特徵」 『양주성축성 1천주년 기념을 위한 학술 토론회』, 양양문화원, 2004
- 車勇杰, 「高麗末 倭寇防守策으로서의 鎭戍와 築城」 『史學研究』 38, 韓國史學會, 1984

- ; <http://uci.or.kr/G901:A-0002924777>
- 최종석, 「고려 전기 지역방어체계의 특징」 『史林』 40, 首善史學會, 2011
; <http://uci.or.kr/G901:A-0002993556>
- 최종석, 「고려말기 지역방어체제와 그 시대성」 『역사와 현실』 85, 한국역사연구회, 2012
; <http://uci.or.kr/G901:A-0003115948>
- 최종석, 「고려시대 지역방어체제의 변화 양상과 그 성격」 『韓國思想과 文化』 64, 한국사상문화연구원, 2012
; <http://uci.or.kr/G901:A-0003478247>
- 한정훈, 「고려 전기 兩界의 교통로와 운송권역」 『韓國史研究』 141, 2008
; <http://uci.or.kr/G901:A-0002503757>
- 홍영호, 「오화리산성의 고고학적 검토에 대한 토론편」 『寥田山城 學術세미나』, 三陟文化院, 2002
- 홍영호, 「三陟市 下長面 宿岩里 山城의 발견과 역사성 검토- 『三國史記』 地理誌의 三陟郡 竹嶺縣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江原史學』 19-20合輯, 江原大學校 史學會, 2004
; <http://uci.or.kr/G901:A-0001942823>
- 홍영호, 「양양 후포매리 신라 산성의 고찰」 『先史와 古代』 30, 韓國古代學會, 2009
; <http://uci.or.kr/G901:A-0002657813>
- 홍영호, 「강원도 동해안지역의 성보(城堡) 검토(1)-평면 말굽형 城址를 중심으로-」 『博物館誌』 17號, 江原大學校 中央博物館, 2010
; <http://uci.or.kr/G901:A-0002929111>
- 홍영호, 「신라의 동해안 연안항해와 하슬라-강릉 경포호 강문동 신라 토성을 중심으로-」 『白山學報』 95, 白山學會, 2013
; <http://uci.or.kr/G901:A-0003511813>
- 홍영호, 「고려시대 東界 지역의 戍 조사 연구-간성과 강릉을 중심으로-」 『軍史』 9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 <http://uci.or.kr/G901:A-0004011537>
- 홍영호, 「속초시 속초리토성의 역사적 성격과 실체」 『白山學報』 108, 白山學會, 2017
; G901:A-0008911508

홍영호, 「강원도 동해안지역의 성보(城堡) 검토(3)-평면 말굽형 城址를 중심으로-」 『博物館誌』 25號, 江原大學校 中央博物館, 2018

[보고서 및 지도위원회의자료]

江陵大學校 博物館, 『江陵正東津高麗城址地表調査報告書』, 學術叢書 18冊, 1998

江陵大學校 博物館, 『東海 於達山 烽燧臺』, 學術叢書 33冊, 2001
강원고고문화연구원, 「삼척 죽서루 주변 유적 3차 발굴조사 1차 학술자
문회의자료」, 2013.8

江原文化財研究所, 『文化遺蹟分布地圖(三陟市)』, 學術叢書 16冊, 2004
; <http://uci.or.kr/G901:A-0006098001>

江原文化財研究所, 『江陵 神福寺址 -부록 강릉 석교리 473-7번지 유
적 발굴조사 보고서』, 學術叢書 75冊, 2007
; <http://uci.or.kr/G901:A-0006180964>

江原文化財研究所, 『江陵邑城』, 學術叢書 57冊, 2006
; <http://uci.or.kr/G901:A-0006150057>

江原文化財研究所, 『襄陽 石城山城』, 學術叢書 85冊, 2008
; <http://uci.or.kr/G901:A-0006244775>

江原文化財研究所, 『三陟 湖山里遺蹟』, 學術叢書 128冊, 2013
; <http://uci.or.kr/G901:A-0006487569>

關東大學校 博物館, 『溟州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學術叢書5, 1994

關東大學校 博物館, 『三陟의 歷史와 文化遺蹟』, 學術叢書 9冊, 1995
; <http://uci.or.kr/G901:A-0008467781>

관동대학교 박물관, 『江陵 溟州山城-地表調査報告書-』, 학술총서 43책, 2009
; <http://uci.or.kr/G901:A-0006353919>

예맥문화재연구원, 『束草 東明洞遺蹟』, 學術調査報告 第61冊, 2014
; <http://uci.or.kr/G901:A-0006531347>

李相洙 外, 『국도7호선(북면~원덕간)도로확포장공사 예정지역 문화유
적지표조사보고서』, 關東大 博物館 學術叢書 24冊, 2000

한백문화재연구원, 『양양읍성-추정 북문지 주변 발굴조사 보고서-』, 2013
; <http://uci.or.kr/G901:A-0006483322>

<Abstract>

The time of construction and nature of the valley encircling fortresses, called as 'Pogoksic' one, on the flatland sites in the East Coast of Gangwon-do

Hong Young-ho

In the East Coast of Gangwon-do, there are valley encircling fortresses on the flatland sites that taken advantage of the natural mountain ridges as ramparts. Mostly the geographical features of mountains (north high and south low), and the east, southeast and south of the mountain fortresses lead to flatland, they had served as the entrance. And there used to be a river flowing in front and a farmland.

Based on the folk materials regarding these mountain fortress, which have been handed down to us, many believe that they were constructed in the age of Yeguk (the Iron Age), the age of Three Kingdoms and the Unified Shilla period. But the researcher classified these types of mountain fortresses, and analyzed archeological materials and folk materials, and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se mountain fortress cannot date back to the age of Yeguk (the Iron Age) and the age of Three Kingdoms.

The researcher believes that only very few of these mountain fortresses were utilized in the Unified Shilla period, and most mountain fortresses were constructed and utilized during the Goryo Dynasty, and many of them were built and used at the end of the Goryo Dynasty and in the early Joseon Dynasty period. In this respect, caution must be exercised when these fortresses are used as base data for historical

interpretation.

The nature of these fortresses varies depending on their sizes, but as the mountain fortresses have a wells, people could live and seek protection in them, and as there are roof tiles, these mountain fortress may be related to the ruling class. In some mountain fortress, roof tiles bearing the name of the 'official residence' were excavated, and as the origins of names of places like 'Jangan (seong),' 'Manho' and 'Jinjang' have been handed down to us, they may be related to Chiso-seong (eup-seong and hyeon-seong), but most of them were controlled by them, or they can be seen as the administrative and military strongholds (villages) of local indigenous forces in charge of managing these fortresses.

Furthermore, as some fortresses are located on the seashore, they are seen to have played the role of non-regular marine transportation and ocean transportation bases on the East Coast, and the reason that these fortresses have a river flowing nearby may be related to transportation of goods.

Key words : Valley encircling fortress on the flatland site, eastern border region, official residence, Jangan (fortress), Manho, Jinjang, Chiso-seong, administrative and military stronghold (base village, fortress for residence) the local indigenous forces, marine transportation and ocean transportation base